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201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강 순 예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강 순 예

인 준 서

강순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사위원(인)

심사위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높은 세시풍속을 저변확대하기 위해 세시풍속이 담긴 창작 동시 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문화적 양상을 파악하고 창작 동시를 매개로 하는 전통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계절 열두 달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세시풍속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 본 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출간한 『조선대세시기』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을 바탕으로 세시풍속의 절기와 명절을 분류하였다. 또한 세시풍속에 관련된 창작 동시 35편을 분석대상 자료로 수집하고 그에 나타난 문화적 양상을 계절별, 절기·명절별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창작 동시에 나타난 절기·명절의 풍습, 복식, 음식, 놀이를 고찰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에 관련된 문화적 양상은 계절별로 봄 21편, 여름 2편, 가을 6편, 겨울 6편이었다. 창작 동시를 계절별 절기·명절로 분석한 결과 봄의 절기·명절로는 설 5편, 대보름 8편, 입춘, 1편, 삼짚날 2편, 춘분 2편, 청명 1편, 한식 1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보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 춘분, 삼짚날이 그 뒤를 이었다. 여름의 절기·명절로는 단오가 2편이었으며, 가을의 절기·명절로는 칠석 2편, 추석 1편, 추분 1편, 상강 2편이었다. 겨울의 절기·명절로는 입동 1편, 동지 1편, 대한 2편, 선달그믐 2편이었다.

둘째,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 문화를 풍습, 절식, 복식, 놀이로 분석한 결과 풍습 31편, 절식 7편, 복식 3편, 놀이 11편이었다. 이 가운데 풍습에는 봄이 1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의 풍습은 2편, 가을의 풍습은 6편, 겨울의 풍습은 4편에서 나타났다. 절식은 봄 3편, 여름 1편, 가을 2편, 겨울 1편으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복식은 봄 3편에서 나타났으며, 놀이에 있어서는 봄 7편, 여름 2편, 가을 1편, 겨울 4편에서 나타났다. 특히 풍습 가운데는 풍년, 건강, 행복을 바라는 기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창작 동시에 담긴 세시풍속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가치는 독자의 대상이 어린이를 넘어 어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시풍속 창작 동시는 자연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선조들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된다. 이와 더불어 세시풍속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해 통합예술문화로 저변 확대함에 있어, 특히 동시는 함축미와 음악성에서 매우 매력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전통문화콘텐츠로서 세시풍속 문화를 담은 창작 동시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적, 교육적, 문화예술적 활용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4
II.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역사 및 분류	9
1. 세시풍속의 개념	9
2.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역사	11
3.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절기와 명절	27
III.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 문화	48
1. 계절별 세시풍속 문화	48
1) 봄의 세시풍속 문화	48
2) 여름의 세시풍속 문화	73
3) 가을의 세시풍속 문화	76
4) 겨울의 세시풍속 문화	84
2.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문화적 양상	92
IV.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가치와 방안	95
1.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가치	95
2.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방안	98

V. 결론 11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분석 대상 박경용의 창작 동시	7
<표2> 분석 대상 강순예의 창작 동시	8
<표3> 고려시대의 9대 속절(俗節)	14
<표4>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난 속절과 관리급가(官吏給暇)	14
<표5> 고려가요 동동(動動)의 장(章)별 주요내용	19
<표6> 조선시대 절기별 농가 행사와 주요 세시풍속	26
<표7> 계절별로 나눈 24절기(2016년 기준)	29
<표8> 창작 동시에 나타난 계절별 절기·명절의 세시풍속 문화	93

그림 목 차

<그림1> 한국일보 기사에 나타난 상강	42
<그림2> 무용총 벽화에 묘사된 고구려인들	96
<그림3>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공익적 활용	99
<그림4>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교육적 활용	101
<그림5>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학술제	103
<그림6>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옛 그림	104
<그림7>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연주회	104
<그림8>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악보 ‘별을 켜는 밤’	105
<그림9>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악보 ‘은하수 다리 놓아’	107
<그림10>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멋글씨	10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공동체 문화를 소중히 여겼다. 그 까닭에 ‘우리’라는 말에 매우 익숙하다. 어떤 이들은 우리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문화예술로 승화하는 문화민족이다. 이러한 우리의 저력은 오늘날 한류의 근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 바탕에는 우리 민족 공동체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해 온 세시풍속이 있다.

우리 민족의 한 해 시작에서 마무리에는 문화와 예술이 내재되어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의 ‘연초놀이’에서,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 묘사된 고구려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정월 초하루에 펼쳐지는 흥겨운 노래와 놀이에는 새해를 맞는 축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뜻깊은 날의 의미를 문화와 예술로 표현하는 우리는 가히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족 공동체 삶의 바탕에는 자연을 경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 가족, 우리, 사회를 결속하는 힘이었던 것을 우리의 세시풍속 문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되어 온 세시풍속 문화는 알게 모르게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었다. 민족의 대 명절이라 부르는 설날과 한가위에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기니, 우리의 공동체 문화는 실로 대단하다. 물론 생활환경의 변화로 표출되는 문화적 양상이 과거와 같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나갈 우리 민족 공동체의 중심에는 명실공히 세시풍속 문화가 있음을 방증한다.

우리의 세시풍속은 농경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계절의 변화에 맞게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과정을 통해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의 생활로 정착된 농경문화는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왔다.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 농민은 천하의 근본이었다. 농경사회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 민족은 농사의 신성함을 아는 민족이며, 고된 삶까지 문화로 승화할 줄 아는 민족이었다. 여기서 연구자는 우리의 세시풍속 문화를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이해하기 위한 주제에 중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세시풍속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세시풍속을 주제로 연구를 했다. 세시풍속에 대한 선행 논문 가운데는 세시풍속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세시풍속의 교육적 의미¹⁾와 세시풍속을 계승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고 특히 유아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생에게 우리 전통 문화에 흥미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시에 행하는 놀이, 음식, 풍습 등에 집중했다. 나아가 세시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도 점차 늘고 있으며, 세시풍속이 문화면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공통점을 지닌 이웃나라와의 세시 비교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정숙주²⁾는 세시풍속 교육에 관한 부모와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를 분석하였고, 강향숙³⁾은 전통음악과 예절을 접목한 유아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 대상의 현장 교육에서 세시풍속을 접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진하⁴⁾는 세시풍속과 연계한 유아국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1)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 47권, 2009, pp.187-214.

2) 정숙주, 세시풍속 교육에 관한 부모와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3) 강향숙, 전통음악과 예절 중심의 유아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 이진하, 세시풍속과 연계한 유아국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를 하였다. 이에 세시풍속을 접목한 유아전통문화교육 통합프로그램은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며, 이를 통해 유아들은 우리의 전통문화 풍습을 알고 조상의 지혜를 터득⁵⁾하게 됨이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시풍속에 관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⁶⁾도 활발하다. 이들 연구에서 세시풍속 교육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주기성을 알게 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알게 하며 이웃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경험하게 하고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도록 하여 유아는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⁷⁾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세시풍속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음은 물론, 공동체 문화 속의 정체성 확인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며,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에서 문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안겨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세시풍속 문화 연구에 있어 시(詩)를 매개로 세시풍속을 연구한 사례나 한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시풍속을 담은 시를 연구⁸⁾한

-
- 5) 주영애·김선주, 우리나라 세시풍속과 관련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모형,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6(1), 2003, pp83-100.
- 6) 이윤영, 초등 사회과에서 세시풍속 교육을 위한 교재 재구성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최배영·김미식·김미희, 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세시풍속 교육 프로그램 연구, 여름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3), 2005, pp109-125.
- 7) 최배영·김미식·김미희, 위의 논문.
- 8) 최양환, 유만공 『세시풍요』의 민속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오연경, 고려숙가 <동동>의 교육방법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은성,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나리, 세시 풍속의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재의 개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주일만, 한·중 세시풍속 관련 언어 표현 비교 연구-명절 관련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왕락, 한·중 설날 세시풍속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당홍, 4대 명절을 중심으로 연구한,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사례도 눈에 띈다. 특히 시를 매개로 한 세시풍속 양상을 전적으로 연구한 논문 가운데는 고려가요 <동동(動動)>, 목은 이색의 한시(漢詩), 세시풍속을 월령체 시로 노래한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 정학유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등을 연구⁹⁾한 사례 등이 있다. 한국어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연구로는 세시풍속이 담긴 시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또한 미술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세시풍속을 연구¹⁰⁾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시풍속 문화를 ‘동시(童詩)’로 접근해 연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동시와 같은 문학 언어는 교육 현장에서 글자를 통해 익힌 말이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귀와 입을 통해 익힌 말, 생활 현장의 말이 독특한 정서적 호소력을 갖는다.¹¹⁾ 특히 문학 작품의 문학용어 가운데 시가 주는 함축미(含蓄美) 또는 음악성으로 자연스럽게 세시풍속을 접하고, 세시풍속에 관심을 유도하기에, 특히 동시는 매우 매력적인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세시풍속을 ‘창작 동시’라는 매개체로 자연스럽게 문화적 소통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담은 창작동시 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문화적 양상을 파악하고, 창작 동시를 매개체로 전통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 9) 임효정, 李穡 漢詩에 나타난 歲時風俗의 樣相 研究,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최양환, 유만공 『세시풍요』의 민속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은성,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10) 김나경, 초등학생의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세시풍속 주제중심학습 프로그램 개발, 미술표현활동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11) 유중호, 말의 힘,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p.254.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역사 및 분류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출간한 『조선대세시기』 I, II, III, IV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과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 문집 편』을 바탕으로 세시풍속 문화의 배경을 서술하였다. 특히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의 세시풍속을 고찰하고,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誌)>,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유만공의 <세시풍요>, 12달 농가 생활을 중심으로 한 월령체의 운문, 정학유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고려가요 <동동(動動)>을 참고하였다. 이 가운데 농가월령가는 농가에서 행해진 행사와 세시풍속은 물론 그 당시의 세목들을 월령체로 쓴 시이다. 따라서 <농가월령가>는 그 시대의 모습을 조목조목 펼쳐놓은 시로, 우리의 세시풍속을 월령체로 자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세시풍속을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작품이다. 유만공의 <세시풍요>도 우리의 세시풍속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한편 고려가요 <동동>은 시이면서 노래라는 특징을 지니는 작품이다.

또한 여러 단행본과 논문 연구 자료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세시가 담긴 연작(聯作) 동시를 쓴 대표적 인물로 박경용¹²⁾과 현대적인 시각으로 세시풍속 문화를 창작 동시에 담아 낸 강순예¹³⁾의 동시를 자료로 수집하였다.

12) 박경용(1940~): 1958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 1984년 대한민국문학상 1969년 제2회 세종아동문학상, 2016년에 열린아동문학상을 받았다. 1980년 어린이에게 우리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세시풍속 문화가 담긴 연작동시집인 본 연구 대상 동시집 ‘별 총총 초가집 총총(서문당, 1980)’과 셋강마을 숲동네(가나출판사, 2011)’를 냈다.

13) 강순예(1964~): 2002년 문예사조 시 부문 신인상 당선, 2012년 짚신문학상, 2013년 문예사조문학상을 받았다. 2014년~2016년 국립국어원 소식지 <쉽표 마칩표>와 경기도 안산시 <참 좋은 뉴스신문>에 본 연구 대상 동시 우리 세시풍속 문화를 담은 창작 동시 ‘우리말 동시’를 연재 하고 있다.

박경용의 창작 동시로는 세시풍속 문화가 많이 담긴 동시집 두 권, 『별 총총 초가집 총총』¹⁴⁾과 『셋강마을 숲동네』¹⁵⁾를 선정하였다. 박경용의 두 권의 동시집에는 연작시 형식으로 계절, 자연, 가족, 절기, 명절, 열두 띠, 놀이 절식 등이 담겨있어 세시풍속 창작 동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 박경용의 연작 동시집 『별 총총 초가집 총총』에 실린 작품과 『셋강마을 숲동네』에 실린 동시는 각각 80편과 60편이다. 그 가운데 15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표1 참조).

강순예의 창작 동시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우리말 동시’¹⁶⁾에 연재된 창작 동시 가운데 세시풍속 문화가 담긴 창작 동시 10편과 미발표된 동시 10편을 선정, 모두 20편의 창작 동시를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표2 참조). 강순예의 미발표된 창작 동시를 선정한 까닭은 우리나라 세시풍속 문화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절기의 세시풍속 문화가 그에 담긴 까닭이다.

한편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 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전승되어 지키고 있는 절기·명절에 역점을 두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계절별로 절기·명절에 해당하는 창작 동시의 전문을 기술하고, 그 시에 담긴 풍습, 절식, 복식, 놀이 등을 파악하였다.

14) 박경용,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15) 박경용, 셋강마을 숲동네, 가나출판사, 2011.

16) 강순예,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우리말 동시, 2016. www.urimal365.kr/

<표1> 분석 대상 박경용의 창작 동시

구분	출간 연도	동시 제목	계절	절기 명절	출처
1	1980	해의 설 달의 설	봄	설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2		신발 도둑 귀신		설	
3		새 소리 들으러		설	
4		넬뛰기, 그 노랫말엔		설	
5		귀밝이 술		대보름	
6		흠칠 것도 없어서		대보름	
7		액뱃이를 보내고		대보름	
8		모기도 팔고 더위도 팔고		대보름	
9		매생이		대보름	
10		대추나무도 시집 보내고		대보름	
11	2011	대보름 무렵	가을	대보름	셋강마을 숲동네, 가나출판사
12		삼진날 무렵		삼진날	
13		늦가을 뒤란	가을	상강	
14	1980	추위쯤이야	겨울	대한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5		선달그믐		선달	

<표1>을 보면 분석 대상 박경용의 창작 동시 15편은 계절별로는 봄 12편, 가을 1편, 겨울 2편으로 구분된다. 절기·명절로는 대보름이 7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설 4편, 그리고 삼진날, 상강, 대한, 선달그믐이 각 1편씩 있다.

<표2> 분석 대상 강순예의 창작 동시

구분	저작 연도	동시 제목	계절	절기 명절	출처
1	2015	잠은 안 오고	봄	설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2	2016	대보름날에		대보름	미발표 창작 동시
3	2015	얼음새꽃		입춘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4	2016	경칩 지나 봄봄.		경칩	미발표 창작 동시
5	2015	흥부네 봄 온다		삼진날	
6	2016	꽃물, 산들에 꽃물		춘분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7	2016	진달래 먹고		춘분	미발표 창작 동시
8	2016	날씨가 좋으니		청명	
9	2016	햇살 좋은 한식날		한식	
10	2016	수릿날에	여름	단오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11	2016	여름방학		단오	
12	2015	별을 켜는 밤	가을	칠석	미발표 창작 동시
13	2016	은하수 다리 놓아		칠석	
14	2015	송편을 빚어요		한가위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15	2014	달 타는 날		추분	
16	2016	상강 오기 전에		상강	미발표 창작 동시
17	2014	야, 겨울 온다.	겨울	입동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참 좋은 뉴스신문
18	2015	동지 맞이		동지	
19	2015	도담도담		대한	
20	2016	선달그믐 밤		선달	

<표2>를 보면 분석 대상 강순예의 창작동시 20편은 계절별로는 봄 9편, 여름 2편, 가을 5편, 겨울 4편으로 구분된다. 절기·명절로는 춘분, 단오, 칠석이 각 2편이 있고, 설, 대보름, 입춘, 경칩, 삼진날, 청명, 한식, 한가위, 추분, 상강, 입동, 동지, 대한, 선달그믐이 각 1편씩 있다.

Ⅱ.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역사 및 분류

1. 세시풍속의 개념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세시(歲時)와 ‘풍속(風俗)’이 조합된 용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세시를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로 정의하였으며, 풍속을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또는 그 시대의 유행이나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세시풍속’이라는 조합된 낱말의 풀이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그 뜻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미 세시풍속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까닭이다. 세시풍속의 개념을 많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즉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며 해마다 농사력에 맞추어 관례(慣例)로서 행하여지는 전승적 행사, 음력 정월부터 선달까지 해마다 같은 주기에 반복되어 거행하는 주기전승(週期傳承)의 의례행위를 말한다. 옛날에는 세시풍속을 세시,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령(時令)으로 불려 특히 시계성(時季性)이 강조되었으며, 절일(節日)이라고 하여 명절로 여겼다.¹⁷⁾

이러한 세시풍속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인간의 삶을 위한 연중행사로서 그 나라의 정신과 승화의 소산¹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세시

17)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p10.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p15.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한국사상과 문화) 47권, 2009, pp187-214.

18) 주영애·김선주, 우리나라 세시풍속과 관련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모형, 앞의 논문. pp83-100.

풍속을 연중행사(年中行事)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용어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연중행사라 하면 연중에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포함한다. 세시풍속은 계절에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연중행사와는 구별해야 한다.¹⁹⁾

세시풍속은 대체로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농경의례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명절, 24절후(節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의례와 놀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경을 주 생업으로 하던 전통사회에서 놀이는 오락성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풍농을 예측하거나 기원하는 의례였다. 그래서 세시풍속을 세시의례(歲時儀禮)라고도 한다.²⁰⁾ 또한 세시풍속은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으므로 보통 사회적, 역사적인 공시성과 통시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화행위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해서 살펴본다면 한 민족의 기층문화 양상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²¹⁾ 세시풍속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많은 학자들이 낱말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뜻은 ‘주기적, 반복적, 전승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라는 말로 공동체 사회를 굳건히 다지는 역할을 했으며, 지혜롭게 과학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2) 주기·전승

세시풍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週期)’, ‘주기적’의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기’는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 주기적(週期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의 주소.

21) 유만중 저·임기중 역,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p304.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묵은해가 가고 새해를 맞는 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기적’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전승(傳承)은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함 또는 그것을 물려주어 잇게 함²²⁾을 뜻하는 말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우리의 세시풍속은 우리 민족 공동체를 굳건히 다져온 힘의 근원이었으며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역사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역사는 문헌상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고시대부터 이미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세시풍속 역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의 세시풍속을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매우 한정적이거나, 『삼국지(三國志)』의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기록된 부여(夫餘)의 정월 영고(迎鼓), 고구려의 10월 동맹(東盟), 예(濊)의 무천(舞天), 마한(馬韓)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인 5월과 10월의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백제의 솟대, 신라의 한가위 등은 모두 세시로 인정된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추석, 수리(단오), 유두,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대보름은 이미 세시풍속의 원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²³⁾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3)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한국사상과 문화) 47권, 2009, pp187-214.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1월은 정월(正月)로 새해의 처음이자 봄의 시작이다. 1월의 절기로는 입춘과 우수가 있으며,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과 대보름이 있다. 특히, 음력 1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기에 천지신(天地神) 또는 시조신(始祖神)에 제사를 지내는 세시의례 등이 행해졌다.

해마다 연초에 패수(溟水)에 모여 놀이를 하는데, 왕(王)은 요여(腰輿, 가마)를 타고 나가 우의(羽儀)를 나열해 놓고 구경한다. 놀이가 끝날 무렵에 왕이 옷을 물에 던져 넣으면 좌우로 패를 나누어 물과 돌을 서로 그 옷에다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세 번 하다가 그친다.²⁴⁾

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1월(正月)에 ‘연초놀이’를 즐겼다.

봄 정월에 왕이 동명묘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지냈으며,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²⁵⁾

위 기록에는 백제에서도 정월에 시조묘를 찾아뵙고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사면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원일(元日)을 중하게 여겨서 서로 경하하고 연회를 베푼다. 해마다 이날에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한다.²⁶⁾

-
- 24) 『北史』 94 列傳 82, 高句麗
每年初聚戲於溟水之上 王乘腰 列羽儀以觀 事畢王以衣服入水 分左右爲二部
以水石相濺 諠呼馳 再三而上
- 25) 『三國史記』 卷 25 百濟本紀 3, 腆支王 2年
春正月 王謁東明廟 祭天地於南壇 大赦
- 26) 『舊唐書』 卷 199 列傳 149, 新羅

신라인들은 원일(元日) 즉 설날을 중히 여겼으며, 정월에 서로 축하하고 해마다 일월신에게 절을 했다. 특히 신라에서는 정월 행사로 연등회를 관람하고 종묘와 시조묘, 신궁, 풍백에 제사를 지냈음이 기록을 통해 전해진다. 가야에서도 수로왕묘에 제사를 지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신라시대의 세시풍속이 대체로 전승되었으며 상원(上元), 즉 정월 대보름의 연등회와 팔관회와 같이 불교적이면서 전국적인 행사가 확산되었다. 이로 보면 고려가 불교국가인 만큼 세시풍속이 국가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것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세시풍속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²⁷⁾ 형금(刑禁)조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고려사에는 민간에서 중요시 여기는 고려의 9대 속절(표3 참조) 즉 명절은 원정(元正), 상원(上元), 한식(寒食), 상사(上巳), 단오(端午), 중구(重九), 동지(冬至), 팔관(八關), 추석(秋夕)이었다. 여기서 원정은 새해 첫날 즉 설날이며, 상원은 정월 대보름으로 태음력에 기초한 것이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3일째 되는 날로 청명절 바로 다음 날이든지 같은 날에 해당되는데 태양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사는 음력 3월 3일, 단오는 음력 5월 5일,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중구는 음력 9월 9일로 모두 태음력을 근거로 두었으며,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태양력을 근거로 한다.²⁸⁾ 『고려사』 지의 형법형금조항에는 형 집행을 금지하는 날로서 국가의 기일, 십치²⁹⁾일, 속절 등이 명시되어 있다.³⁰⁾

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拜日月神

27) 고려사(高麗史)는 1449년(세종 31년)에 편찬하기 시작해 1451(문종 1년)에 완성된 총139권의 고려시대 역사서이다.

28) 정구복·주영하, 고려시대 세시풍속연구,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편), 국립민속박물관, 2003, p515.

29) 살인을 금하는 날로, 형벌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열흘을 말한다.

<표3> 고려시대의 9대 속절(俗節)

속절 명	월 일	휴가 일수
원정	1월 1일	7일
상원	1월 15일	3일
한식	동지로부터 105일	3일
상사	3월 3일	1일
단오	5월 5일	1일
추석	8월 15일	1일
중구	9월 9일	1일
동지	11월 절기	1일
팔관	11월 15일	3일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편), 2003, p515. 표 재구성.

한편 고려시대에 중히 여겼던 속절·명절은 고려 관리의 휴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의 관리들은 절기가 겹치지 않았을 경우 최대 93일까지 쉴 수 있었다(표3, 표4 참조)

<표4>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난 속절(俗節)과 관리급가(官吏給暇)

휴가 기간	해당 명절
7일 간	정초, 납향
3일 간	상원(정월 보름날), 한식, 입하, 하지, 삼복, 중원(7월 보름날), 팔관
1일 간	입춘, 정월 중 자일과 오일, 인일, 연등, 춘사, 춘분, 제왕사회(3월 3일), 칠석, 입추, 추석, 추사 사직제일, 추분, 수의, 중양, 동지, 하원, 일월식, 단오

출처: 친진기, “세시(歲時)의 어제와 오늘,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p52. 표 재구성.

<표3>과 <표4>에서 고려 관리의 휴가가 24절기와 명절에 따라 매년 주기적이고 의례적인 세시풍속에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

30) 『高麗史』 卷 84, 志38, 刑法, 名例 禁刑 國忌
 十直【初一日·初八日·十四日·十五日·十八日·二十三日·二十四日·二十八日·
 二十九日·三十日.】
 俗節【元正·上元·寒食·上巳·端午·重九·冬至·八關·秋夕.】
 愼日【歲首子午日,二月初一日.】

으로 보았을 때, 고려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세시풍속에 중점을 두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시이자 노래로 불린 고려가요 <동동>³¹⁾에서도 고려시대의 세시풍속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동>은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 성종(成宗)조 향악정재(鄕樂呈才) 도의(圖儀)중에 연희의 구연 방식과 노랫말이 실려 있고, 『대악후보(大樂後譜)』 권7에 악보가 전해진다.³²⁾

<동동(動動)>

德으란 곰빅예 받좁고 / 福으란 림빅예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이하 장에서는 생략함)

正月스 나릿므른 / 아으 어저 녹져 흐논딕
누릿가온딕 나곤/ 몸하 흐을로 널서

二月스 보로매 / 아으 노피 현
燈스불 다호라 /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三月 나며 開흐 / 아으 滿春들윗고지여
늑딕 브를 즈슬 / 디녀 나샷다

四月 아나 니저 / 아으 오실서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니몬 / 넷 나탈 닛고신더

31) 고려시대, 작자 미상의 가요.

32) 오연경, 고려속가 <동동>의 교육방법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12. 재인용.

五月五日애 / 아으 수릿날 아츨 藥은
즈믄힐 長存 ㅎ살 / 藥이라 받즙노이다

六月스 보로매 / 아으 별해 ㅅ론 ㅅ다호라
도라보실 니믄 / ㅅ곰 ㅅ니노이다

七月스 보로매 / 아으 百種 排ㅎ야 두고
니믄 ㅎ디 ㄴ가져 / 願을 비시습노이다

八月스 보로몬 / 아으 嘉俳나리 마룬
니믄 ㅅ져 ㄴ곤 / 오늘늬 嘉俳샷다

九月九日애 / 아으 藥이라 ㅅ는
黃花고지 안해드니 / 새셔가 만ㅎ애라

十月애 / 아으 ㅅ미연 ㅅ룻 다호라
것거 ㅅ리신 後에 / 디니실 ㅎ부니 ㅅ스샷다

十一月스 봉당자리에 / 아으 汗衫 두퍼누워
슬홀 스라운더 / 고우닐 스긱음 ㄴ셔

十二月스 분디남ㅅ로 갓곤 / 아으 나술盤잇 ㅅ다 호라
니ㅅ 알ㅅ ㄴ러 ㄴ이노니 / 소니 가재다 ㅅ르습노이다³³⁾

『악학궤범』에 적혀 있는 ‘동동’을 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33) 김명준편저, 고려통요집성, 도서출판 다운샘, 2002, pp380-381.

덕일량은 뒷 잔에 바치옵고 / 복일량은 앞 잔에 바치옵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 드리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이하 생략)

정월의 냇물은 / 아!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누리 가운데 나고는 / 이 몸은 홀로 지내누나.

이월 보름에 / 아! (내 님은) 높이 켜
등불 같아라. / 만인 비치실 모습이로다.

삼월 나면서 편 / 아! 늦봄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자태를 / 지니고 나셨도다.

사월 아니 잊고 / 아! 오셨네, 피꼬리여.
무슨 일로 녹사님은 /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오월 오일에 / 아! 수릿날 아침 약은
천 년을 길이 사실 / 약이라고 받치웁니다.

유월 보름에 / 아! 벼랑 가에 버린 빗 같아라.
돌보실 님을 / 잠시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칠월 보름에 / 아! 갖가지 제물 벌여 두고
님과 함께 지내고자 / 원을 비웁니다.

팔월 보름은 / 아! 한가윗날이건마는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 오늘이 한가위여라.

구월 구일에 / 아! 약이라 먹는 국화꽃
꽃이 방 안에 드니 / 향기만 은은하여라.

시월에 / 아! 잘게 썬 보로쇠 갈아라
꺾어 버린 뒤에 / 지니실 분이 하나도 없어라

십일월 봉당 자리(흙바닥)에 / 아! 흘적삼 덮고 누웠네.
슬픈 일로구나 / 고운 임 여의고 홀로서 살아감이여.

십이월 분지나무로 깎은 / 아! 차려 올릴 소반의 젓가락 갈아라.
님 앞에 가지런히 놓으니 / 손님이 가져다 입에 무웁니다.

고려가요 동동의 각 장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정리(표5 참조)하면 정월,
입춘, 삼월 삼진날, 단오, 유두, 백중, 한가위, 중양일, 선달그믐 등의 계절,
절기·명절이 나타나 있다.

<표5> 고려가요 <동동(動動)>의 장(章)별 주요내용

장	주요 내용	절기·명절
1장	임을 향한 송도	정월 제사
2장 정월	입춘지나 봄을 맞는 설렘과 임의 죽음을 안타까워 함	입춘 제사
3장 2월	임을 연등회에 밝힌 등불로 비유	연등회
4장 3월	임을 추운 겨울을 지나 피어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핀 진달래로 비유.	삼월 삼짱날
5장 4월	4월 피꼬리, 때를 잊지 않고 찾는데 임은 나를 잊음	
6장 5월	수릿날, 임의 장수를 빌며 약을 바침,	단오
7장 6월	유두날 머리를 빗질한 빗처럼 버려졌으나, 임이 나를 돌아보시리라 추억	유두
8장 7월	임의 제사. 내세에는 헤어지지 말자 소원 빔	백중 제사
9장 8월	홀로 지내, 더욱 슬픈 추석, 임의 제사상을 차림	한가위 제사
10장 9월	임의 장수를 위해 국화를 약주를 만들어 임에게 바침	중양일 제사
11장 10월	자신의 처지를 볼품없이 꺾여 버려진 가지, 게다가 얇게 저민 브룻 열매라, 버려져 꺾인 가지처럼 처절히 버림받게 한 임을 원망함	
12장 11월	가장 추운 달, 불도 땄 수 없는 흙바닥 잠자리로 살아온 처지의 자신을 한탄	
13장 12월	임의 제사 ‘나슬盤’은 제사상을 가리킴. 산초나무로 깎아 만든 젓가락을 임의 혼령 앞에 가지런히 둔다.	선달 제사

출처: 김선기, 高麗歌謠의 해석과 이론, 역락, 2013, pp86-87. 재구성.

3) 조선시대

오늘날과 같은 세시풍속의 행사가 귀착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조선시대 세시풍속은 우리의 농경주기(農耕週期)와 관련되어 있으며 계절의 구분은 농경주기에 따랐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세시기(歲時記)로는 다음과 같이 『경도잡지(京都雜志)』,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들 수 있다.

(1) 경도잡지(京都雜志)

조선 영조·정조 때의 문신 유득공(柳得恭:1748~1807)이 18세기말 서울 사람들의 각종 생활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1권은 풍속편(風俗篇)으로 의복·차와 담배·과일·노래와 광대·시문·시화(詩畵) 등 당대 서울의 문물제도를 19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였고, 그 유래나 비관을 덧붙였다. 2권 세시편(歲時恭)에서는 정월부터 세밑까지 각 세시풍속의 내용을 19항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고증하였다.³⁴⁾

(2)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조선 순조 때 김매순(金邁淳:1776~1840)이 열양, 곧 한양(漢陽)의 연중 행사를 기록한 책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의 행사와 품목을 21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술했다. 주로 서울의 풍속을 다루었는데 연원을 중국 풍속에서 찾았다.³⁵⁾ 정월에 입춘(立春)·원일(元日)·인일(人日)·상해일(上亥日)·상원(上元), 2월에 삭일(朔日)·육일(六日), 3월에 한식(寒食)·삼

34)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42.

35)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p99.

일(三日) · 곡우(穀雨), 4월에 초파일, 5월에 단오와 십일(十日), 6월에 보름과 복일(伏日), 7월에 중원(中元), 8월에 중추(中秋), 9월 · 10월에 이십일(二十日), 11월에 동지, 12월에 납일(臘日) · 제석(除夕)의 세시풍속이 기록되어 있다.³⁶⁾

(3)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세시풍속 연구자들이 세시기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다. 조선 순조(純祖) 때의 학자 도애(陶厓) 홍석모(洪錫謨:1781~1850)가 지은 세시풍속서(歲時風俗書)이다. 정월 초부터 선달까지 모두 23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월내(月內)라 하여 그 달의 맨 끝에 싣고, 윤달[閏月]의 풍속도 서술하였다. 각 세시 내용마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³⁷⁾ 등 중국의 예를 들어 그 근원을 밝히려 했다. 『경도잡지』와 『열양세시기』에서 ‘경도(京都)’와 ‘열양(洌陽)’이 서울을 뜻하는 바와 같이, ‘서울’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동국세시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세시풍속에 관한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동국세시기』에 기록된 이자유(李子有)³⁸⁾의 서문(序文) 내용을 보면 『동국세시기』가 얼마나 세심하고 친절하게 세시풍속을 기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37) 중국 육조 시대의 후베이(湖北) 지방과 후난(湖南) 지방의 연중행사와 풍속을 기록한 책. 6세기 중기에 양나라 종림(宗懷)이 편찬하였다. 1권.

38) 1697(숙종 23)~1761(영조 37). 조선 후기의 문신.

서序

내가 일찍이 설과 보름에 관한 우리의 풍속을 각기 수십 절기의 시로 간략하게 지은 일이 있었는데, 그 시를 본 사람은 내용이 충실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입을 벌리고 감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 그 다음 절기들도 서술해 가 한 나라 세시의 유래와 실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겨를을 찾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내다가 지금에 이르니 몸은 쇠약해지고 게을러져 필력이 쇠퇴하여 이전처럼 문득 생각나는 대로 적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나의 친구 도애(陶厓) 홍석모(洪錫謨)가 찾아와 책상(几) 위에 책 한편을 뽑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우리나라 세시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에는 종림(宗櫛: 중국 북주시대 사람으로 초나라 풍속 36종을 수록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를 지었다.) 이래로 이런 책을 지은 사람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여태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번에 마치 못생긴 여자가 미인의 표정을 흉내 내듯이 격에 맞지 않은 시능을 내어 우리 풍속이 각기 다름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서문 하나 없이는 믿을 만한 책이 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서문 하나 부탁한다.” 고 하였다.

내가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책을 끝까지 읽어보니 정월부터 선달까지 제목이 모두 23항목이었으며, 그 달에 행해지지만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을 수 없는 행사는 그 달 끝에다 ‘월내(月內)로 구별하여 실었고 맨 나중에는 윤달 행사를 붙였다. 가까이는 서울로부터, 멀리는 궁벽한 시골에 이르기까지 비록 평범한 하나의 행사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비속한 것일지라도 그 절기에 해당하면 빠뜨리지 않고 모두 실었으며 우리나라 풍속 밑에는 반드시 전설이나 기록물 중에서 부합되는 것을 널리 채집하여 그 유래와 출처를 증명하였다. 고증이 풍부하고 내용이 넉넉한데다가 잘못 빠진 것들을 모두 실은 것이 물줄기를 따라 물의 근원에 이르고 가지로 말미암아 그 뿌리에 이른 것 같으니, 이는 비단 한 나라의 풍속을 묘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려한

옛 중국문명과 견주어 유사한 것들을 잘 살려 엄연히 하나의 통일된 문자를 이룬 것이다.

풍부하다 그의 표현력이여. 반드시 후세에까지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큰술에 들어있는 잘게 저민 고기 한 점 맛본 것이니 어찌 그와 더불어 제대로 된 고기 맛에 대해 논할 수 있겠는가.

오호라. 흥군이 젊은 시절만 해도 그에 대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가 아니면 누가 임금 옆에서 왕명출납을 맡아 수행할 인재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자진해서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결국 운명에 막혀 쌓아 놓은 재주를 아무도 사지 않아 저 대궐의 풍성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높은 벼슬은 남에게 넘겨주고 말단 관리로 머물면서 늘그막에는 자포자기하여 오직 사부(辭賦)와 시율(詩律)로서 스스로 무료함을 보내고 적적하고 우울하고 평온치 못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니 어찌 이리도 어그러진 일이 있겠는가.

이번에 그의 이 작업도 무료한 가운데 소일거리로 보낸 것의 하나이지만 한 나라의 풍속을 모두 기술하고 모든 세시의 문헌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름 등 여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영성한 기록과 일방적인 견문에 그친 것보다는 나은 점이 많다.

내가 이 글을 감상하는데 빠져 며칠을 두었으므로 이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이에 이 글을 적어 보답하는 바이다. 39)

기유년 중양 후 4일(1849년 9월 13일)
곡양만객(穀壤漫客)이자유(李子有) 서(序)

(4) 세시풍요(歲時風謠)

유만공(柳晩恭:1793~?)은 한양지방을 중심으로 월령체 성격을 띤 칠언 절구 한시(漢詩) <세시풍요>를 남겼다. 시의 대상이 신분과 남녀노소 차이

39)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173, pp177-267.

를 두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유만공(柳晩恭)은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소재로 하여 정월(正月)부터 선달까지의 계절 변화에 따른 갖가지 생활 모습을 담은 200여 수의 시를 짓고 <세시풍요>라 이름 지었다. 세시풍요를 역주한 임기중은 <세시풍요>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우리의 세시풍속을 써 놓은 책, 유득공의 경도잡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민주면의 동경잡지가 잡기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유만공의 세시풍요는 정갈한 체제를 갖춘 세시풍속 시집이다. 정월 초하루부터 선달 그믐까지 우리의 세시풍속을 왕실·관인·사대부로부터 민가·기생·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형평에 맞게 시로 읊으면서 친절하게 간주까지 달아 설명하고 있다. 서울권 중심의 세시풍속을 이와 같이 시로 고르게 써 놓은 것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 아닐까 한다.⁴⁰⁾ 『세시풍요』에 나타난 연작시는 대부분 큰 명절과 관련이 깊다. 요컨대 『세시풍요』에서는 큰 명절에 다양한 계층의 놀이 또는 풍속을 소개 하는데 연작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⁴¹⁾ 『세시풍요』는 백성들의 풍속뿐만 아니라 사대부, 궁중 풍속을 포함한 당시 한양의 전반적인 풍속에 대해 적고 있다. 당대 풍속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작가는 시어사용에 있어서도 고유어를 많이 채택 하고 있고, 전고의 사용도 한국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풍속과 세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돕기 위해 작가는 각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속학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요컨대 세시기의 기록은 사실을 위주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기술을 강조한 나머지 연행의 실제 모습과 연행의 주체에 대한 의식을 찾기 어려운 반면, <세시풍요>에서는 세시의 연행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듯 적고 있으며, 해당 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시각적인 차이를 두어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풍속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⁴²⁾

40) 유만공 저·임기중 역,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p.3.

41) 유만공 저·임기중 역, 위의 책, pp.12-13.

42) 유만공 저·임기중 역, 위의 책, p.123.

(5)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농가월령가>는 조선 헌종 때 정학유(丁學游:1786~1855)가 지은 월령체(月令體), 즉 달거리체의 장편 가사시(歌辭詩)이다. 1책 필사본으로 전체 1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월부터 선달까지(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매 달마다 알아두어야 할 세시풍속을 세밀하게 다루었다. <농가월령가>에는 24절기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지가 개벽하니, 일월성신(日月星辰) 빛을 보내 해와 달은 정해진 도수(度數)가 있고, 못별들은 맞물려 도는 순서 있어 일 년은 360일 정칙대로 돌고 돌아 동지, 하지, 춘분, 추분 해가 도는 순서이며 초승 그믐 보름 일랑, 다리 차고 기운 이치로다. 땅 위 동서남북, 위치에 따라 틀린 것은 북극성을 기준하여 원근으로 정해진 24절기 열두 달이 차례로 나뉘었고 매달에 두 절기가, 보름씩 갈리어서 춘하추동 오고 가며, 저절로 한 해 되네.⁴³⁾

조선시대 절기별 농가의 행사와 세시풍속을 담은 주요 일정을 『동국세시기』를 기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6>

43) 김지용·김미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와 월여농가(月餘農歌) 시(詩), 명문 동양문고, 2008, pp60-62.

<표6> 조선시대 절기별 농가 행사와 주요 세시풍속

음력	24절기	농가 행사	주요 세시풍속	12지 (支)
1월	입춘 우수	농기구 정비, 소 보살 피기, 보리밭 거름주 기, 눈밭둑 태우기	설빔, 차례, 세배, 복조리, 세화, 횡수 막이, 쥐불놀이, 토정비결·직성 보기, 과수나무 돌 끼우기, 널뛰기, 옷놀이, 연날리기, 입춘체 붙이기, 오곡밥 먹 기, 달붙이, 안택고사, 복토 훑치기, 부럼, 귀밝이술, 더위팔기, 용알 뜨기, 개보름 쇠기, 달맞이, 줄다리기, 석전, 담교, 기세배 벗가랏대.	인 (寅)
2월	경칩 춘분	봄보리갈이, 목화밭갈 이, 담배모종, 과수나 무, 뽕나무 옮겨심기	영동할머니 벗가랏대 허물기, 머슴날, 콩 볶기, 쯤생이 보기.	묘 (卯)
3월	청명 곡우	가래질, 씨레질, 못자 리 준비, 기장·조· 콩 심기, 들깨모종, 보 리밭 김매기, 뽕밭관 리, 과수 접붙이기	한식, 묘제, 삼짚날, 화전놀이, 장 담 그기.	진 (辰)
4월	입하 소만	목화·뽕나무 관리, 수수·참깨 관리, 풀 베어 거름 만들기, 무 논 씨레질, 이른 모내 기.	초파일, 연등, 등 띄우기, 줄불놀이.	사 (巳)
5월	망종 하지	보리타작, 모찌기, 누 에척, 모내기, 들깨 심 기, 담배 모종.	산맥이, 단오, 단오부채, 쭉호랑이, 천 중부적, 단오치장, 창포, 그네뛰기, 씨 름, 봉숭아 물들이기.	오 (午)
6월	소서 대서	보리·밀·귀리 베기, 콩·팥·조·기장 갈 이, 김매기, 삼베기.	유두천신, 삼복, 천렵	미 (未)

<표6> 계속

음력	24절기	농가 주요 행사	주요 세시풍속	12지 (支)
7월	입추 처서	꿀 배기, 허수아비 세우기, 밭거름 주기, 무·배추같이, 목화밭 관리.	칠석고사, 백중날, 백중놀이, 호미씻이, 우란분재, 두레 길쌈	신 (申)
8월	백로 추분	목화·고추 말리기, 박 따기, 참깨·담배·녹두 수확, 보리밭 같이.	벌초, 추석차례, 거북놀이, 소놀이, 근친, 강강술래.	유 (酉)
9월	한로 상강	벼 베기, 조·팥·콩 거두기, 이삭줍기, 목화타기, 기름짜기	중양절, 중양제사.	술 (戌)
10월	입동 소설	무배추 거두기, 기망, 메주 쪄기, 곶감 만들기.	말날, 시제, 성주고사.	해 (亥)
11월	대설 동지	가마니 짜기, 외양간 살피기.	동지, 동지고사, 동지차례.	자 (子)
12월	소한 대한	술 빚기, 두부 만들기.	납일(臘日), 제석, 묵은세배, 나례(儺禮), 수세(守歲).	축 (丑)

출처: 홍석모 저, 정승모 역, 동국세시기, 한권으로 집대성한 우리나라 세시풍속, 풀빛, 2009, p253 참고 표 재구성.

3.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절기와 명절

1) 절기(節氣)

세시풍속의 기준이 되는 역법(曆法)은 음력이지만 양력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음력은 태음태양력(Lunisolar

Calender)의 약자로서 음력이 중심을 이루되 양력도 가미된 것이다. 24절후는 양력 날짜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태양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력으로는 해마다 날짜가 달라진다. 가령 24절후이자 세시명절이기도 한 동지의 경우 양력 12월 22일에 들지만 음력으로는 동짓달 초순, 중순, 하순 등 해마다 달리 든다.⁴⁴⁾

우리의 세시풍속은 태음력(太陰曆)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히 달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원래 음력은 태양·태음력을 말하는데, 계절과 역일(曆日)⁴⁵⁾을 고려한 태양력과 태음력의 혼합이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음력과 양력이 혼합된 태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 해를 기준으로 달마다 배분되어 있다. 이러한 달의 주기성과 변화는 한국의 세시풍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매 절기마다 상이한 풍습을 만들었다.⁴⁶⁾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구분하는 절기는 정확히 24절기(二十四節氣)를 말하는데, 절기는 태양의 황도 상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황도에서 춘분점을 기점으로 15° 간격으로 점을 찍어 총 24개의 절기로 나타낸다고 정의되고 있다.⁴⁷⁾ 24절기를 계절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각 계절마다 여섯 개, 각 달마다 두 개의 절기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절기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쓰자면, 24절기는 원래 절기와 중기의 합친 말로서 12개의 절기는 월초에, 12개의 절기는 월 중에 있다. 따라서 입춘은 1월의 절기이며, 우수는 1월의 중기이다. 여기서 기(氣)란 5일을 1후(候)라고 했을 때 3후 즉 15일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배치했으므로, 태양력에 따라 나눈 절기와 날짜가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나눈 절기를 음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윤달을 넣어 계절에 맞게 조정하게 된다. 24절기를 사계절로 나누

4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45) 역일(曆日):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46)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한국사상과 문화) 47권, 2009, pp187-214.

47)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있을 때, 절기 별 음력과 양력을 간추리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계절별로 나눈 24절기(2016년 기준)

계절	달(음력)	절기	음력	양력	명절
봄	1월	입춘(立春)	12월 26일	2월 4일	설, 대보름
		우수(雨水)	1월 12일	2월 19일	
	2월	경칩(驚蟄)	1월 17일	3월 5일	-
		춘분(春分)	2월 12일	3월 20일	
	3월	청명(淸明)	2월 27일	4월 4일	삼진날, 한식
		곡우(穀雨)	3월 14일	4월 20일	
여름	4월	입하(立夏)	3월 29일	5월 5일	초파일
		소만(小滿)	4월 14일	5월 20일	
	5월	망종(芒種)	5월 1일	6월 5일	단오
		하지(下地)	5월 17일	6월 21일	
	6월	소서(小序)	6월 4일	7월 7일	유두, 삼복
		대서(大暑)	6월 19일	7월 22일	
가을	7월	입추(立秋)	7월 5일	8월 7일	칠석, 백중
		처서(處暑)	7월 21일	8월 23일	
	8월	백로(白露)	8월 7일	9월 7일	추석
		추분(秋分)	8월 22일	9월 22일	
	9월	한로(寒露)	9월 8일	10월 8일	중양
		상강(霜降)	9월 23일	10월 23일	
겨울	10월	입동(立冬)	10월 8일	11월 7일	-
		소설(小雪)	10월 23일	11월 22일	
	11월	대설(大雪)	11월 9일	12월 7일	-
		동지(冬至)	11월 23일	12월 21일	
	12월	소한(小寒)	11월 27일	1월 6일	선달그믐, 납일
		대한(大寒)	12월 12일	1월 21일	

조선 중기 윤선도(尹善道:1587~1671)는 <대명절책(對名節策)>을 남겼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절기와 명절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대명절책(對名節策)

명절에 대한 책문(경오년에 아울러 기록하다)

문노라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늘의 법칙이므로 한 해에는 계절마다 명절이 있다. 이것은 모두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내려 주어서 절기에 맞게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관찰하여 느낀 대로 취해서 이름을 붙인 것인가? 동지에 갈매재가 나는 것을 누가 처음 추측하였으며, 동지 이후에 취해서 한줄 씩 더해지는 것은 또한 어떤 목적인가? 정월 초하루 종묘에서 시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적으로 새해를 축하하는 것이 특히 후대에 성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윤선도, 「고산유고」, 권6, 별집, 책48)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계절에 있는 명절은 절기의 변화에 따른 세시풍속임을 말해준다.

2) 월별 절기와 명절

(1) 1월

봄의 문턱에 들어서고,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농가에서는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때이다. 정월(1월)에 가장 중요한 명절은 설과 대보름이다.

① 설(음력 1월 1일)

서울 풍속에 설날 집안사당에 배알하고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한다. 남녀 어린이들은 모두 새 옷으로 단장하는데 이것을 설빔[歲粧]이라고 하고, 집안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을 세배(歲拜)라고 한다. 이날 시절음식으로

4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 2004, p15.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세찬(歲饌)이라고 하고 대접하는 술을 세주(歲酒)라고 한다.⁴⁹⁾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을 한자로는 원일(元日)이라고 한다. 즉 원일은 우리 전통명절이다. 『동국세시기』에는 설날 행해지는 풍습을 위와 같이 기록했다.

멥쌀가루를 찌서 안반 위에 놓고 떡메로 무수히 쳐서 길게 늘려 만든 가래떡을 흰떡[白餅]이라고 한다. 이것을 얇게 엽전 두께만큼 썰어 장국에다 넣고 끓인 다음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후춧가루를 쳐서 조리한 것을 떡국[餅湯]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사에도 쓰고 손님접대에도 사용하므로 세찬에 빠져서는 아니 될 음식이다. 세속 언어로 나이 몇 살 먹었다는 것을 떡국 몇 그릇 쟈 먹었다고 한다.

50)

설에 행해지는 풍습과 설날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위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오늘날에도 ‘나이’에 대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떡국 몇 그릇 쟈 먹었다.’라는 언어유희(言語遊戲, Pun, Calambour)는 우리 조상들의 시적인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알록달록 색동저고리 아름답게 꾸미고
세배 가는 아이들 기뻐 어쩔 줄 모르네
돌아올 때 소매 가득 무엇을 얻었는지
꼬챙이에 췌 곳감과 색색의 강당이네

촌사람들 사대부처럼 외관을 갖추고서

49)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177.

50) 국립민속박물관 편 위의 책, p177.

세배를 다니다가 길에서 서로 만나면
새해를 송축하며 진중하게 하는 덕담
아들 낳으라 부자 되라고 하네.⁵¹⁾

글 잘 짓는 신하들 대궐에 특별히 불러
정월 초하룻날 연상시⁵²⁾를 짓게 하네.⁵³⁾

유만공(柳晩恭)이 현종 9년(1843)에 지은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설날 아침 풍경을 같이 위와 같이 표현했다. 설날의 풍습으로 설빔과 세배가 나오며, 새해를 기뻐하며 덕담을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날에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임금님께 시를 지어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정월 대보름(음력1월 15일)

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무를 ‘딱’ 소리가 나도록 깨문다. 이를 “부럼문다.” 고 한다. 부럼을 깨면 이가 튼튼해지고 일 년 동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귀밝이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져 일 년 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⁵⁴⁾

경북 고령 풍동골의 세시풍속에는 보름날 새벽에 콩과 같이 딱딱한 열매를 깨문다. 이를 부럼이라고 한다. 귀밝이술로 청주를 조금씩 마신다.⁵⁵⁾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풍습은 지역마다 다르나,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 깨물기, 묵은 나물에 오곡밥 먹기, 더위 사기, 약밥 먹기, 정월 보름달 보고 가뭄이나 장마를 점치는 풍습은 비슷하다. 또한 보편적으로 정월 대보름에

51) 국립민속박물관 편 유만공, 세시풍요, 조선대세시기Ⅱ, 2005, p39.

52) 연상시(延祥詩):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여 나라와 임금에게 상서로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벼슬아치들이 지어서 바치는 시.

53) 국립민속박물관 편, 유만공 세시풍요 조선대세시기Ⅱ, 위의 책, p42.

54) 김명자, 한국세시풍속 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 경북 안동 세시풍속, p439.

55) 김명자, 한국세시풍속 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 강원도 원성 세시풍속, p378.

먹는 부럼⁵⁶⁾을 딱딱한 견과류로 여기고, 단단한 견과류를 깨먹으면 이가 튼튼해지고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 반면 안동에서는 위와 같이 부럼으로 무를 깨무는 풍습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풍습이 흥미롭다.

소나무씨는 단단하고 복숭아씨는 견고한데,
씹어 깨치기를 재갈 같이 하는 소년들이 의아스럽다.
비록 피부에 아프고 괴로운 것 없기를 원하나,
저 이빨이 이미 아픈 걸 어떻게 할까?
단단한 실과를 씹어서 종기 없기를 바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한다.⁵⁷⁾

조선 후기 유만공은 현실적인 표현을 종종 썼는데, 부럼 깨무는 풍습을 위와 같이 풍자했다.

정월 열 나흘날 밤에 온가족이 잠을 자지 않고 하얗게 지새운다. 이때 자는 사람은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잠을 피한다. 자는 사람이 있으면 밀가루를 눈썹에 칠해 잠이 깬을 때 눈썹이 썼다며 놀려준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날 밤 특별한 준비할 일도 많지 않아 일찍 자는 경우가 많다.⁵⁸⁾

위의 시와 같이 정월 열 나흘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풍습은 보편적으로 선달그믐 밤에도 해당된다.

③ 입춘(立春)

입춘은 음력 선달에 들어서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정월 첫 번째로 드는

5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부럼’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인 땅콩, 호두, 잣, 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런 것을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 또는 전라남도과 충청남도의 방언으로 ‘부스럼’을 뜻하는 말이다.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57) 유만공 저 임기중 역,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p69.

58) 김명자, 한국세시풍속(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 위의 책, p302.

절기이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했다. 입춘 날에 대문이나 대들보 ‘입춘대길(立春大吉)’ 이라 써서 한해의 축복을 기원했다.

(2) 2월

경칩(驚蟄)에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팔딱이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경칩은 24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3월 5일 무렵에 해당된다. 경칩의 풍습으로는 ‘개구리 알 먹기, 고로쇠 물 마시기, 개구리 울음으로 점치기’ 등이 있다. 예전에는 경칩 때 개구리 울음소리로 풍년·흉년 운을 점치기도 했다.

(3) 3월

① 삼진날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갈라 붙여 둥근 떡을 만든 다음 참기름에 지진 화전(花煎)을 먹는다. 이는 바로 옛날의 지짐이 떡[熬餅], 또는 기름에 지진 중국 음식의 하나인 한구(寒具) 같은 것이다.⁵⁹⁾

서울 풍속에 산언덕 물굽이를 찾아 놀러 다니는 것을 화류(花柳)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삼진날 답청(踏青), 즉 처음 돋은 풀을 밟는다는 풍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이들이 버들가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분다. 그 피리를 버들피리[柳笙]라고 한다.⁶⁰⁾

② 청명(淸明)

4월 5일경 봄비가 내리고, 볍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온 산들에 꽃물이

59)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15.

60) 동국세시기. 위의 책, p220.

번지는 계절, 봄이 짙어가는 계절이다.

청명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으로,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같은 생업 활동을 하기에 좋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하여,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도 이날 산소를 돌보거나, 밧자리 고치기, 집수리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겨우내 미루어두었던 것들이다.⁶¹⁾ 이 날 임금은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불을 일으켜 각 관사에 하사한다. 농가에서는 이 날부터 봄갈이[春耕]를 시작한다.⁶²⁾

③ 한식(寒食)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한식은 설,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였다.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음식으로 송편과 백주, 모시조개로 지은 밥을 잘 먹었다. 이날은 불을 금하는 날이지만 그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⁶³⁾

한식날 느낀 점이 있어서 나그네 몸으로 아름다운 명절 만나니,
하늘가에서 옛사람 생각나네⁶⁴⁾

고인들은 한식날 선조의 묘 생각해, 가슴속 정 그려내서 시를 지었네.
지금 나는 성묘에 참여할 수 없는 몸, 동풍에 머리 돌리니 저절로 처량하다.
이건, 「규창유고」, 권3, 시, (122-059D)⁶⁵⁾

6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sesi/>

62) 국립민속박물관 편, 홍석모,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15.

取榆柳之火頒賜各司卽周官出火唐宋賜火之遺制也 農家始春耕

63) 유만공 저 임기중 주,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p143.

64) 국립민속박물관 편, 신익상, 성재유고, 책5, 시, 146-169, ‘寒食日有感’ 발췌, p312.

6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문집 편, 2005, p217.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문집편』에 적힌 시(詩)를 보면, 조선후기에 한식(寒食)을 중요한 봄 제사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위는 한식날 조상의 묘를 찾지 못하여 수심이 쌓인다는 내용이 있다.

들판의 냇물 봄날에 선명하고, 산간 마을은 살구꽃 속에 숨었네.
봄바람이 부는 한식 명절.

홍세태, 「유하집」, 권1, 시, 167-310C,⁶⁶⁾

중춘(仲春)의 한식날은 비바람 많은데, 성 안의 사람들 모두 선묘에 오르네.
북쪽 언덕 산 밑에 무수한 무덤들

홍세태, 「유하집」, 권1, 시, 167-331D, 부분발췌⁶⁷⁾

위는 한식날에 봄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아래 시를 볼 때, 한식 전날이 청명이었음이 나타나 있다.

금년 한식은 상사일(上巳日)⁶⁸⁾이기에 하루 전날이 청명(淸明)이다.

박세채, 「남계집」, 권4, 시(138-098B)⁶⁹⁾

(4) 4월

입하(立夏), 석가탄신일

6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문집편-, 홍세태, 유하집, 권1, 시, 167-310C, ‘寒食’ 부분 발췌 p311.

6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문집편-, 홍세태, 유하집, 권1, 시, 167-331D, ‘寒食’ 부분 발췌 p311 p190.

6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사일(上巳日): ‘음력 정월(正月)의 첫 번째 사일(巳日)을 이르는 말. 이날 머리를 빗거나 깎으면 그해 집안에 뱀이 들어온다고 하여 남녀 모두 머리를 빗거나 깎지 않는다.

6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문집편-, 박세채, 남계집, 권4, 시, 138-098B, ‘분강가에서 맞이한 한식’ 부분 발췌, p311.

음력 4월이면,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 중요한 행사로 석가탄신일이 있다.

4월 8일 석가가 탄생한 날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 날 등불을 켜기 때문에 등석(燈夕)이라고 한다. 『고려사(高麗史)』에 “왕궁이 있는 서울(송도)부터 시골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에 이틀 밤씩 등불을 켜다. 최이(崔怡: ? ~ 1249)는 4월 8일에 등불을 켜다.” 고 하였는데, 정월 보름의 연등행사는 원래 중국의 제도이며 고려 때까지 있었던 이 풍속도 이제는 없어졌다. 또 생각건대 『고려사』에 “우리나라 풍속은 4월 8일이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여 집집마다 등불을 켜다. 이보다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깃발처럼 장대에 매달아 서울 거리를 외치고 돌아다니면서 쌀과 포목을 얻어 그날 비용으로 쓰는데 이를 호기(呼旗)라고 한다.” 고 하였는데, 지금 풍속에 등 장대에 깃발을 다는 것은 과거 호기의 유습이며 이것을 반드시 4월 8일에 행하는 것은 최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⁷⁰⁾

위와 같이 동국세시기에서 홍석모는 고려시대의 팔관회, 연등회가 조선 시대에 와서는 사라지고, 다만 4월 8일 즉 사월 초파일로 행해졌으며, 이는 곧 우리의 명절이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것이기도 함을 말했다.

이때의 절식으로서는 콩을 볶아 소금을 약간 쳐서 길가는 사람을 맞이해 다 먹기를 권하여 인연을 맺는다고 하였고, 어채(魚菜)나 생선만두 등의 첫여름의 시절음식으로 먹었다.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은 모두 봉숭아를 따다가 백반을 섞어 짓쪄어 손톱을 물들인다.⁷¹⁾

(5) 5월

70)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p223-225.

71)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위의 책.

음력 5월 5일 단오(端午)에 임금은 규장각(奎章閣) 신하들에게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든 애호(艾虎)를 하사했다. 남녀 아이들은 창포를 끓인 물로 얼굴을 씻고 모두 붉은 색과 녹색의 새 옷을 입었으며, 부녀자들은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를 만들고 혹은 그 끝에 연지로 ‘수(壽)’ 자나 ‘복(福)’ 자를 새겨 쪽에 꽃아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오 치장[端午粧]이라고 한다. 단오를 속칭하여 수리날[戌衣日]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우리나라 말로 수레[車]다. 이 날 쑥을 뜯어 짓쪼아서 멥쌀가루에 넣고 초록색이 나도록 반죽을 하여 수레바퀴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72) 단오떡 위에 박은 떡살무늬가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푸른색의 쑥절편으로 차륜병(車輪餅), 애엽병(艾葉餅), 수리치떡이라고도 한다. 또한 쑥이 많은 이때의 절식으로 쑥국, 쑥버무리, 쑥절편, 쑥인절미 등을 즐겼다.

고려시대 <동동>에는 ‘오월 오일에 / 아! 수릿날 아침 약은 / 천 년을 깊이 사실 / 약이라고 받치옵니다.’ 라고 쓰여, 이 무렵 햇쑥이나 약쑥을 뜯어 말려 약초로 썼고, 수릿날 아침에 임의 건강을 바라며 천 년을 사실 약으로 바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6) 6월

유두(流頭)는 음력 6월 15일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한여름이다. 유월 보름날을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유두날[流頭日]이라고 하며 명절로 지냈다.

내 생각에는 고려 명종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가 쓴 문집(文集)⁷³⁾ 중에 “경주의 옛 풍속에 6월 보름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들

72)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29.

73) 문집은 『김거사집(金居士集)』을 말한다.

을 씻어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재앙을 물리치는 제를 지내고 술을 마시는데 이것을 유두잔치[流頭宴]라고 한다.” 고 하였는데, 지금 조선 풍속에서도 이것을 이어받아 속절(俗節)로 삼고 있다. 경주에는 아직도 이런 풍속이 남아 있다. 이 날은 뭇 쌀가루를 찌서 둥글고 긴 가래떡을 만든 다음 그것을 구슬같이 잘게 썰어 꿀물에 담갔다가 얼음을 채워 먹으며 제사에도 쓴다. 이것을 수단(水團)이라고 한다.⁷⁴⁾

동국세시기에 기록된 위 글을 볼 때, 유두일을 조선시대에는 속절, 즉 명절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유두일

김령, 「계암선생문집」, 권2 시, 오연율

우리나라 풍속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유두는 옛날부터 있어 왔네. 이 날의 음식인 분단은 차갑고, 색깔이며 모양 또한 신선하네. 시골 보리방아 소리는 요란 하고, 품팔이의 김매는 소리도 친근하네. 창을 열고 괴로움을 씻어내니, 인간에게 가장 좋은 밝은 밤이네.⁷⁵⁾

위 글에서 유두일이 예전 전해온 명절이며, 유두에 시원하고도 찬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7) 7월

① 칠석

음력 7월 7일 칠석(七夕)을 전후로 내리는 비를 칠석비[七夕雨]라고 한다. 칠석에 비가 오는 것을 가리켜서 ‘칠석물지운다, 칠석같이한다, 칠석아래비’ 라고도 한다. 또한 칠석비로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기도 한다.

74)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38.

7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 2004, p442.

『세시잡기(歲時雜記)』에 의하면, 음력 7월 6일에 오는 비를 세거우(洗車雨)라 하고, 7월 7일에 오는 비를 쇄루우(灑淚雨)라고 한다. 한국의 민간에서는 칠석날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거나 병을 쫓는 영험이 있어 빗물로 목욕을 하고 물맛이를 한다.⁷⁶⁾

7월 칠석(七夕)

이 날 인가에서는 옷가지를 밖으로 내어 햇볕을 쬐이는데,
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이다.⁷⁷⁾

칠석

일 년에 한번 은하수를 건너니, 오작교 가의 길은 아득하기만 하네. 가장 인생에서 미운 것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기약이 또 한 해로 넘어감을 어찌해야 하겠는가?⁷⁸⁾

② 백중(百種)

음력 7월 15일. 머슴날(칠석), 망혼일(亡魂日), 중원(中元), 호미 씻는 날이라고 부른다. 중들은 재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며 큰 명절로 여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 날로 망혼일(亡魂日)을 삼는데 대개 향간의 백성들이 이 날 달밤에 채소·과일·술·밥 등을 차려놓고 죽은 어머니의 혼을 불러 모신다.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의 시에 “시장에 채소와 과일이 많은 것을 보니 도성 사람들이 오늘 도처에서 죽은 혼을 위해 제사지내겠구나.” 라고 하였다.⁷⁹⁾

7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sesi/Search.jsp>

77)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43.

人家曬衣裳盖古俗也

78) 국립민속박물관 편, 김시습, 매월당 시집, 권13, 관동일록,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 2004, p468.

79)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43.

(8) 8월

8월이 되면 맑은 이슬 내리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8월의 중요한 명절로 한가위가 있다. 한가위 즉 추석을 ‘가배’라고 칭한 것은 신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아무리 궁벽한 시골의 가난한 집이라도 으레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먹는다. 안주나 과일도 분수에 넘치게 가득 차린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있다. 새 곡식이 익었고 가을 농작물을 추수할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⁸⁰⁾

추석날(팔월십오일(八月十五日))

(속칭 추석이라고 하고 또한 가배일이라고 칭한다.)

신선 같은 농가에 팔월이 돌아왔으니,
신라(新羅) 남은 풍속 가배를 즐겨한다.
어느 마을에 송아지를 끌고 친정에 오는 여자가.
수수 인절미 쌀떡을 가득 싣고 오는가.⁸¹⁾

음력 8월 15일 한가위는 추석(秋夕) 또는 가배일(嘉俳日)·중추절(仲秋節) 등으로 불리는 우리의 2대 명절이다. 최남선(崔南善)은 둘 다 보름달을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와 유사하고 신라 때의 풍습이라고 하였다.

(9) 9월

80) 국립민속박물관 편, 열양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146.

81) 유만공 저, 임기중 역,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p229.

① 상강

양력 10월 23, 24일 경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한다.

1969년 10월 23일 한국일보 기사에는 상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가을 가운데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때이며, 이날의 기사에는 국화꽃에 서리가 맺혔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래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선생문집(草澗先生文集)』에는 상강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다.(그림1)



<그림1> 한국일보 기사에 나타난 상강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숙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산 모양이 파리해 보이고, 구름 끝에 처음 놀란 기러기가 나란히 가로질러 가네. 시냇가의 쇠잔한 버들은 앞에 병이 들어 시드는데, 울타리 아래에 이슬이 내려 찬 꽃부리가 빛나네. 도리어 근심이 되는 것은 노포(老圃)가 가을이 다 가면, 때로 서풍을 향해 깨진 술잔을 씻는 것이라네.⁸²⁾

② 중양절

이 날 노란 국화 꽃잎을 따다가 국화 찹쌀떡을 만드는데 방법은 3월 삼진날의 진달래 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또 이름도 화전(花煎)이라고 한다. 송나라 사람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⁸³⁾에 “도시 사람들이 중구(重九: 9월 9일)에 가루로 떡을 찌서 서로 선물한다.” 고 하였는데, 지금의 국화떡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잘게 썬 배와 유자(柚子)와 석류(石榴)와 잣 등을 꿀물에 탄 것을 화채(花菜)라고 하는데 이것들 모두 시절음식으로 제사에 쓴다.⁸⁴⁾

(10) 10월

입동과 소설의 계절이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긴 휴식의 계절이 시작되며, 추워지기 시작한다. 이때는 농가에서 무와 배추를 거두고, 메주를 쑤고, 꽃감 만들기를 한다. 인가에서는 10월을 상달[上月]이라고 하여 무당을 불러 성주신[成造神]⁸⁵⁾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집안이 편안하기를 기원한다. 이 달 20일에는 해마다 큰바람이 불고 추운데 그것을 손돌바람[孫石風]이라고 한다.

82) 사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index.nfm>

권문해, 초간선생문집 발췌, 한국세시풍속사전 재인용,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국립민속박물관, 2004. p592.

半夜嚴霜遍八紘 肅然天地一番清 望中漸覺山容瘦 雲外初驚雁陣橫 殘柳溪邊凋病葉 露叢籬下燦寒英 却愁老圃秋歸盡 時向西風洗破觥.”

83)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의 작자 맹원로는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이다. 금의 침입으로 남송으로 온 후 북송의 수도인 변경(汴京)의 문물과 풍속을 기록한 책으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84) 국립민속박물관 편, 홍석모,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48.

85) 성주신[成造神]은 집안의 으뜸 되는 신으로 집을 완성한 다음 마루에 설치한다. 성조신(成造神)으로 표기한다.

(11) 11월

대설(大雪)과 동지가 있는 계절이다. 농가에서는 이때 가마니를 짜고, 외양간을 살피며, 동지차례를 올렸다. 이때, 팔죽을 쑤어 먹고 차례에도 올렸다. 동지(冬至)는 11월에 중요하게 여기는 세시행사이며,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절기이다. 동짓날을 작은 설[亞歲]이라고 하여 팔죽을 쑤며 찹쌀가루를 썬서 새알 모양으로 만든 떡을 그 죽 속에 넣어 심(心)을 삼는다. 이것에 꿀을 타서 시절음식으로 먹으며 제사에도 쓴다. 팔죽 국물을 문짝에 뿌려 액을 막기도 한다.⁸⁶⁾

(12) 12월

① 선달그믐

선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세말(歲末), 세모(歲暮), 세밑(歲-), 연말(年末), 제석(除夕) 등으로도 부른다. 이날 시절 음식으로는 만둣국, 동치미, 골동밤을 먹는다. 선달그믐날 밤, 야광(夜光) 귀신이 인가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곧바로 신고 가버리는데, 체를 마루 벽에 달아놓거나 섬돌 사이에 걸어두면, 야광귀는 신발을 신을 생각도 잊고 체의 구멍 수를 세다가 닭이 울면 그만 가버린다고 한다.⁸⁷⁾ 또한 선달그믐에 잠을 자면 두 눈썹이 쏸다고 하여 어린아이들은 대개 이 말에 속아 잠을 자지 않는다. 혹 자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 눈썹에 발라놓고 다음날 거울을 보게 하여 놀려주고 웃었다⁸⁸⁾고 한다.

86)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55.

87)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위의 책. p261.

88)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위의 책, p262.

저물 녘 마당에서 머리카락 태워 재를 뿌리니
묵은 액을 제거하고 재앙도 사라지게 하네
신도와 울루(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흉악한 귀신을 막는 귀신)가
항상 꾸짖으며 막고 있으니 야광신이 어떻게 신발을 훔치러 올 수 있으랴 89).

위 시는 조선후기 유만공의 작품으로 선달그믐 밤 묵은 액을 제거한다는
풍습과 속신을 나타낸다.

마성린(馬聖麟)⁹⁰의 농제속담(弄題俗談) 14수⁹¹
선달그믐날 밤 4수

삼경이 되긴 전은 금년이지만
삼경이 지난 후는 내년이라네
깊은 밤 한 시간도 안 되지만
금년과 내년이 여기에서 나뉘네.

묵은해 보내고 새해 맞는 환한 등불
재미승 지나갈 때에 첫답이 우네
부엌에서 떠들썩 웃으면서 하는 소리
시루떡 잘 익었으니 집안이 태평하리

오늘 저녁 무슨 날 선달그믐이니
내년이면 내 나이 쉰여섯이 되네
깊은 밤 집사람이 술상을 내어 오니

89) 유만공 세시풍요 중 정월 초하루 부분 발췌.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Ⅱ, p47.

90) 마성린(馬聖麟): 조선 후기의 서예가. 본관 장흥(長興). 자 성희(聖羲). 호 미산(眉山).
정조(正祖) 때 벼슬이 첨지에 이르렀고,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의 정아함은 당시 신필
(神筆)이라 할 만큼 명성이 높았다. 판목(板木)에 새긴 것이 전한다.

91) 마성린 농제속담 14수, 선달그믐 밤 4수,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Ⅱ, 2005,
pp202-203

상위에는 떡국과 꿩다리 한 조각

어릴 적에는 손꼽아 새해를 기다리며
수세⁹²⁾하는 이 밤에는 잠들지 못 하였네.
오늘이 수세날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늙으신 아버지 새벽까지 잠 못 드시네.

설날 4수 가운데 4수
집집마다 퇴발을 골목에서 태우고
신발 잃을까 두려워서 깊이 감추네
오늘밤의 귀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 사람들 밤비 타고 온다고 하네⁹³⁾

마성린의 위 시에는 많은 것이 담겨있다. 묵은해와 새해로 갈리는 것에 대한 상념과, 새해 첫날 잘 익은 시루떡으로 한 해가 태평할 것이라는 희망이 들어 있다. 또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니 아이들은 어제보다 자랄 것이며, 아버지의 늙음이 깊어질 것이라는 아쉬움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달그믐 밤의 속신인 골목에서 퇴발을 태우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신발귀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밤비’를 타고 온다는 시적인 표현을 하며 선달그믐밤의 총체적인 것을 담아냈다.

② 납일(臘日)

납일은 동지 후 세 번 째 오는 술일(戌日)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동지 후 세 번 째 미일(未日)로 정해 종묘와 사직에 큰제사를 지냈다. 납일

9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용 ‘수세(守歲)’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수세(守歲): 음력 선달 그믐날 밤에 집 안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는 일. 또는 그런 풍습. 이날 밤에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한다. 해지킴.

93) 마성린 농제속담 14수, 설날 4수에서 발췌,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Ⅱ, 2005, p205.

제사에는 멧돼지와 산토끼를 쓴다. 경기도 내에 산간 고을에서는 예로부터 납일 제사에 쓰는 돼지를 바치기 위해 그 지방 백성들을 동원하여 멧돼지를 수색하여 잡았으나 정조 임금의 특명으로 이를 폐지했다. 납일에 내린 눈을 녹인 물은 약으로 쓰이며, 그 물에 물건을 적서 두면 좀이 슬지 않는다.⁹⁴⁾

94)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259.

Ⅲ.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 문화

1. 계절별 세시풍속 문화

1) 봄의 세시풍속 문화

봄의 절기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가 있고. 명절로는 설날, 대보름, 삼짇날, 한식이 있다. 우리의 한 해 세시풍속이 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만큼 봄은 모든 것의 중요한 시작임을 말해준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봄을 노래한 연작시가 많다.

(1) 설날

<잠은 안 오고>⁹⁵⁾

창밖엔 애기별꽃 소록소록
별이 내려요, 꽃이 내려요.

아침이 오면
알록달록 색동옷 입고
타래버선 복주머니
곱게 땀은 귀밑머리에
배씨댕기 도투락댕기 드리고

95) 강순예, 잠은 안 오고,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칩표>, 우리말 동시, 2015.
www.urimal365.kr/

언니랑 오빠랑 세배 가요.
숫눈길 사박사박 함께 가요.

오늘은 까치설날
잠은 안 오고
머리맡 설빔도
잠은 안 오고

새해 첫 시작, 첫날이다. 예로부터 올바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새해 첫날인 설날에는 위 시의 ‘숫눈길 사박사박’이라는 표현처럼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길을 걷듯 깨끗한 마음으로 가족과 친지에게 한 해의 첫인사인 세배를 드린다. 위 시는 우리의 대명절인 설날의 풍습⁹⁶⁾을 나타낸다. 예로부터 색동옷을 입고 배씨 땡기, 도투락땡기를 드리고 타래버선, 복주머니 등의 설빔과, 가족과 친지에게 새해 첫인사를 하는 세배의 풍습을 볼 수 있다.

<해의 설·달의 설>⁹⁷⁾

아빠는 올 설날도 십드령한 얼굴이시다.
—아무래도 설은 옛 설이라야 제맛이지.
조상을 섬겨 모시던 음력설이 제격이래.

96) 국립민속박물관 편, 동국세시기, 조선대세시기Ⅲ, 2007, p177.

어린이들은 모두 새 옷으로 단장하는데 이것을 설빔[歲粧]이라고 하고, 집안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을 세배(歲拜)라고 한다. 이날 시절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세찬(歲饌)이라고 하며 대접하는 술을 세주(歲酒)라고 한다.

97) 박경용, 해의 설 달의 설,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9.

박경용 동시집 『별 총총 초가집 총총』의 동시는 대화체에 ‘줄표(—)’가 사용되었으며, 대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겹따옴표를 쓰거나, 대화체에 문장부호를 생략한 곳도 있다.

엄마는 엄마대로 옛 생각에 잠긴 얼굴.
—그래요. 멀고 가까운 집안이 한자리에 즐기던…….
색동옷 다섯 빛깔의 깃동. 그 옛 설이 좋았단다.

아빠 바지 저고리에 동두렷이 솟은 달!
엄마 치마 저고리의 하얀 동정, 자주 옷고름,
주름진 열 두 폭 치마에 출렁이는 부신 달빛!

보श्य요, 아빠 엄마, 내 설빔에 뜨는 해를.
달의 설렘 못 건줄 해의 설을.
—아무렴! 우리의 달보다는 한결 값진 너의 해!

위 시에 나타난 가족의 대화를 통해 1980년대 당시 설을 맞는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의 대명절 음력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설날의 변화⁹⁸를 살펴보자면, 일제는 우리 설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고 일본 문화에 맞게 양력설인 ‘신정(新正)’으로 정해 쇠게 했다. 1984년 갑오경장 때 양력을 택했고, 고종황제는 1895년 11월 17일, 음력설을 양력으로 규정하였고, 1896년 설을 1월 1일로 쇠라는 칙명을 내렸다. 해방 전인 1945년 신정을 3일 간의 공휴일로 정해졌으며, 우리 설(음력)은 ‘이중과세’라는 말로 억제하였다. 1985년에는 우리의 설을 ‘민속의 날’로 규정, 1일 간 공휴일로 정했으며, 1989년부터 음력설을 3일 간의 공휴일로 정했다.

98) 천진기, 세시(歲時)의 어제와 오늘,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p39.

<신발 도둑 귀신>⁹⁹⁾

—새 신발 도둑맞을라. 머리맡에 두고 자자.

—그럴 것 없잖니? 체를 걸어 두면 그만이지.

—좋겠다, 그게. 한데, 체를 걸어 두면 어떻게 된다더라?

—바아보 ! 금새 까먹었군. 새겨 들어 두라구.

설날 밤, 물론 오늘 같은 음력 설날 밤이지.

하늘에 사는 ‘야광귀’ 라는 귀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집을 기웃거리며 댕돌에 놓인 신발이 있으면

그걸 신어 보아서, 제 발에 꼭 맞으면 신고 가버린대지 않았니?

—그거야 알아. 신발 도둑맞은 사람은 그 해 운이 나쁘대지?

—그래서 모두들 신발을 방에 들여 놓거나 다락에

숨겨 두고 잔댔지.

설날 밤엔 다들 일찍 자게 되지 않았겠니? 눈썹이

썰까보아 설날 그믐날 밤엔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또 설날엔 일찍부터 종일 세배 다니느라 지쳐

있었으니까 말야. 그러니 신발 도둑맞기 안성맞춤이거든.

—그것도 알아. 체를 걸어 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만…….

—뭇보다 그 ‘야광귀’ 를 막는 게 상책이잖니?

대문에 체를 걸어 두거나, 마당에다 긴 막대를 세우고

그 위에 체를 걸어 두면 하늘에서 그 ‘야광귀’ 란 놈이

내려오다가 체를 발견하고 체눈이 몇 개나 되나 세어 본다지.

99) 박경용, 새 소리를 들으러,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p46-47.

체눈이 너무 총총히 많이 박혀 있어, 그 눈이 세다가는 어디까지
세었는지 잊어버리고는 다시 세고, 또다시 세고 하는 사이에
날이 밝는다는 거야.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놈은
집에도 못 들어가 보고 그만…….
—알았어. 그 눈은 그만 허겁지겁 하늘로 떠올라간대지.

음력 설날 그믐밤에 할머니가 들려 주신 얘기를
언니와 내가 하나 하나 되새겨 떠올리다,
은근히 겁이 나서 대문에다 체를 걸어두고 잤단다.

위 시에는 설날 밤 온다는 신발귀신, 야광귀에 대한 속신을 나타내고 있
다. 신발귀신이 나타나는 때를 지역마다 다르게 말한다. 설날그믐 밤에 온
다고 하거나, 설날 밤에 온다고도 한다. 같은 점이 있다면, 야광귀에게 신을
뺏긴 사람은 그해 운이 좋지 않다고 믿어, 밤에 잠을 자기 않는 수세를 하
는 풍습이 있었다.

<새 소리 들으러>¹⁰⁰⁾

새 소리를 들으러 뒷동산에 올랐단다.
정월 초하룻날, 음력 설날 이른 아침
새 소릴 들으러 언니랑 뒷동산에 올랐단다.

새 소리를 들으러 동산에 올랐다니,
그것도 음력 설날 이른 아침이었다니
왜, 왜, 왜 왜 그랬던가, 넌 모르지 동무야.

100) 박경용, 새 소리 들으러,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p44-45.

—옛날엔 설날 새벽에 거리로 나갔다가
처음 듣는 새소리로 일년 운수 점쳤어.
그 소리, 까치면 풍년, 참새면 흉년이라고.

아빠의 그 말씀에 사뭇 귀가 솔깃해서
언니와 나는 똑같이 눈짓으로 약속했어.
올 한 해 운수가 어떤가를 보러 가자, 가자 하고.

그래, 무슨 새 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게?
언니와 나는 손잡고 짱충짱충 뛰었다.
그야 뭐, 뻔한 거 아니겠니, 언젠 내 운이 나뻐니?

음력 설날 이른 아침, 뒷동산에 올랐다가
제일 먼저 들은 새 소리 카랑한 까치 소리.
해 돋는 내 가슴 동산, 맑게 감도는 산울림.

위 시에서 새해 첫날 제일 먼저 듣는 새 소리로 한 해의 운수를 점쳤던 풍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처음 듣는 새소리가 까치 소리면 그해 농작물은 풍년이 들 것이며, 참새 소리면 흉년이라고 하니, 농경사회인 우리 민족은 새해의 시작부터 농사 점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널뛰기, 그 노랫말엔>¹⁰¹⁾

할머니 어렸을 적 먼먼 그 옛적엔

101) 박경용, 널뛰기, 그 노랫말엔,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p110-111.

집안에 갇혀 살던 여자애들 놀이라곤
널뛰기, 그것밖에는 운동놀이가 없었대.

뛰어라 뛰자 뛰자
좀 먹지 말게 뛰어라.
칙간 밑에 꽃 꽃아 두고
꿍꿍 뛰어라.

—좀 먹지 말게 시원시원
꽃다옴게 뛰자는 말.

엄마가 어렸을 적 가까운 그 옛적도
한 번 뛰어 이웃집 안 담 너머 구경하고
두 번을 뛰어 동네 한 바퀴 휘 둘러 살펴보고.

형네 집서 콩 한 되를
얻어다가 심었더니
콩 한 말이 되었네.
한 되를 심었더니
한 말이 되었네.
한 섬이 되었네.

널을 뛰며 부르던 노랫말에 감춘 뜻도
그 해에 심을 콩이 풍년 들라 비는 마음.
가난에 찌든 살림을 이기려고 부른 노래.

위 시에서는 당시 여자 아이들의 놀이문화인 널뛰기를 통해 가난을 이기
고자 했고 풍년을 기원했던 서민들의 풍습을 볼 수 있다.

(2) 대보름

달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에게 새해 첫 번째 뜨는 대보름달의 의미가 매우 크다. 그 까닭에 명절 가운데 정월 대보름날에 관련된 시가 유난히 많다.

<대보름 무렵>¹⁰²⁾

아무리 나이 들어도
마을은 아직 어리디.
지키고 보살피며
길러 주는 자연 앞엔
그나마 어리광피우는 한날
아이밖에 더 되는가.

품안에 잠들어 있던
마을이 깨어 흥청대자
산과 골짜, 들과 내도
더불어 선잠 깨어
모처럼 기지개를 켜다.
주름살 고쳐 편다.

때마침 마을을 도는
신바람 난 농악대.
손주한테 이끌리어
나들이 가는 할배처럼

102) 박경용, 대보름 무렵, 셋강마을 숲동네, 2011, p72.

그 위를 산과 내와 들이
우쭈대며 따른다.

정월 대보름, 절기상으로는 봄이다. 이 시는 자연의 품에서 겨울잠을 자는 어린아이 같던 마을이 깨어나고, 대보름 마을 농악대의 흥겨운 놀이에 산과 골짜기, 들과 내도 봄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보름날에>¹⁰³⁾

아빠가 부림을 깨물며
“내일이면 옷놀이 팔씨름에
마을이 온통 수런수런
와실덕실하겠네요.”

한 귀 어둔 울 할머니
귀밝이술 따르며
“올 한 해, 귀가 환하겠구나.”

할아버지 날 보시며
“잠들면, 이 할아버처럼
눈썹 하얘진단다.”

눈 암만 부릅떠도
술금술금 다가와
술락술락 감겨드는……
꽃잠.

103) 강순예. 대보름날에, 미발표 동시.

땃바람부터 일어난 오빠
“우리 가족 더위, 제가 몽땅 샅니다!”
새된 그 목소리에
화들짝, 헛귀 들고
보름날 밝았어요.

위 시에는 대보름 풍습인 절식과 놀이문화가 담겨 있다. 온가족이 둘러앉아 부럼을 깨고, 귀밝이술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대보름에 더위를 팔아 그 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재미있는 더위팔기 풍습을 엿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정서와 달리 오히려 가족의 더위를 혼자 다 사겠다고 말하는 아이 모습에서 배려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대보름 놀이인 윷놀이와 팔씨름, 흥겨운 놀이가 펼쳐질 마을의 모습에서 우리 세시풍속의 바탕인 공동체 문화가 보인다.

<귀밝이 술>¹⁰⁴⁾

차디찬 약밥을 먹고 둘러앉은 아랫목
어둠이 짙어지자, 술상 곁에 호두알알.
아빠는 귀밝이 술을, 우리들은 부럼을.

—그 때는 부스럽도 큰 병의 하나여서
그걸 어떻게든 물리칠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정월 대보름이면 부럼을 깨물었단다.
언니가 심통 부리듯 툭 쏘아 붙이는 말.

104) 박경용, 귀밝이 술, 별 총총 초가침 총총, 서문당, 2011, pp60-61.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이지.
귀가 멀어진다는 건 보배 잃기 아니냐.
그래서 귀밝이 술을 마셔 귀를 밝게 했느니라.

‘귀밝이 술’ 이 궁금한 내게 할머니가 일러 주자,
—젯, 어른들이 괜히 술 마실 핑계 대느라고,
언니가 또 볼멘 소리로 한 마디 쏘아 붙인다.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풍습에 담긴 옛 어른들의 마음을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되리란 그 믿음이 귀한 거야.

아빠의 그 말씀을 거들고 나서는 엄마,
—귀가 총명해지길 그토록 바란 마음,
남의 말 가려서 듣고, 속말까지 듣는 귀.

엄마의 그 말을 거들고 나서는 할머니
—웁고말고, 귀에 당장 거슬리는 말도,
잘 담아 새겨 들으면 약이 되는 법이거든.

위 시에는 차디찬 약밥을 먹는, 대보름 절식과 부럼이 나타난다. 대보름에 약밥을 먹는 풍습은 신라 소지왕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등의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난 동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시에서 ‘귀밝이술’ 에 의문을 품는 아이의 모습과, 귀밝이술에 담긴 걸말과 속뜻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어른의

모습에서 삶의 지혜가 느껴진다. 이 시에서 우리 조상들이 공동체 문화의 바탕인 소통을 매우 중요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흠칠 것도 없어서>¹⁰⁵⁾

마음살이 두터웠던 할머니 그 옛적엔
남의 눈 속이고 흠칠 것도 아주 없어
흠이나 몰래 가져오고, 샘물이나 훔쳐왔다.

— ‘복토 흠치기’ , 복이 들어있는 흠 흠치기.
대보름 전날 저녁,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집에 몰래
들어와, 그 집 마당이나 뜰의 흠을 파와서
자기네 집 부뚜막에 발랐다는 거야.
그렇지, 그 부자집 복을 제 집으로 옮기려고.

—대보름날 전날 밤엔 또 ‘샘물대기’ 를 했대나.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샘물 가진 집에서
물이 잘 나오는 다른 집 샘에 가서 물동이로 물을 길어 와
자기 집 샘에 부으면서, “빛 좋고 맛 좋은 물아, 많이 많이 나와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마른 샘도 물이 났대.

도둑질치고는 얼마나 애교 있니, 동무야!
흠과 물 도둑맞을 걱정이나 하고 산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 한결 더 복되련만!

위 시에서 복토 흠치기 ‘와 ‘샘물대기’ 등 대보름 전날 밤에 행했던 서

105) 박경용, 흠칠 것도 없어서,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51.

민의 풍습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잣집 마당 흙을 옮겨와서(복토 훑치기) 부뚜막에 발라 복을 얻고자 했던 풍습이나 샘물대기에서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음을 알 수 있다.

<액맥이를 보내고>¹⁰⁶⁾

선달부터 날려 오던 손에 짙은 방패연을
대보름날 아침, 뒷동산 허리에 올라
산너머 하늘 밖 멀리 액맥이로 보낸 뒤엔.

다시는, 이젠 다시는 연을 날리지 말자고
멀어 가는 연을 바래 글썽이는 눈으로
우리 그 조무래기들은 연날리기는 말자고.

—액맥이 연을 날려 보냈으니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내내 액을 면케 되었구나.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텅 비어…….

그 텅빈 한 귀퉁이 마음을 메우려고
우리는 사정없이 팽이를 때려 주었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분풀이라도 하듯이.

당차게 야무지게 단단히 쥔 팽이채.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도록.

106) 박경용, 액맥이를 보내고,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p64-65.

온 몸이 후끈후끈히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우리 손끝에서 땀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웅우웅 울었어, 우리 마음도 징징징.
몸과 맘 하나가 되어 우웅우웅 징징징.

한 닷새 땀이와 사귄 끝에 거진거진
가슴 한 귀퉁이가 조금은 허전한 대로
모두들 그 애뜻한 연을 잊어 가고 있을 무렵.
내가 젤 먼저 아빠를 조르고 졸라
새끼손가락 걸어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어.
춤추는 가오리연을 날리러 동산 위에 내가 먼저.

—아빠, 아빠 ! 그 애기 흐뭇하기는 하지만요
새끼손가락 그 약속을 먼저 깨뜨리다니요.
하기사 제가 아빠였더라도 그럴밖엔 없었겠죠만.

위 시에는 선달부터 띄운 가오리연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액막이로 날려 보내는 풍습으로, 액막이로 날려 보낸 연이 한 해의 나쁜 운을 모두 막아 줄 것이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속신이 담겼다. 이와 반대로 정든 연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의 허전하고도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담겨 마치 한 편의 동하를 읽는 듯하다.

<모기도 팔고 더위도 팔고>¹⁰⁷⁾

107) 박경용, 모기도 팔고 더위도 팔고,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p56-57.

—지저분한 것도 많은 요즘 세상과는 달리
하도 팔 것이 없어서 모기도 팔고 더위도 팔고.
그 다음, 할머니의 얘길 너도 한 번 들어 보렴.

정월 대보름날, 해 뜨기 전 이른 아침.
이웃 친구를 찾아가 이름을 부르고, 그 친구가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한대나. 그러면, 더위를 산 사람은
다가오는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게 되고, 멋도 모르고 대답했다가
사게 된 사람은 그 해 여름에 두 사람 몫의 더위를 먹게 된대나.
그러게, 그런 땀 누가 불러도 대답을 말아야 했대.

비슷한 얘긴데 말야, 모기도 팔았단다.
이웃 마을에 가서 그 마을 동창이나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마을 모기 다 가져가라.” 외치고는,
“자네 마을 모기 다 받았네.” 하고 혼자 중얼거린다는 거야. 마치
물건을 팔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나면, 그 해는 모기 없는 여름을
맞을 수 있었대나,
그러게. 모기도 팔려면 남 먼저 팔아야 했대.

그 얘기 끝에 할머니, 또 무어라 한 줄 아니?
—다 꿈같은 얘기지만, 어디 웃어 남길 얘기냐.
얼마나 눈물 겨운 착함이나, 그 시절 사람들은.

위 동시에는 대보름 더위와 함께 모기도 팔았다는 재미있는 풍습이 담겼
다. 특히 제주도,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름엔 모
기로 입은 피해가 컸으며, 모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액막이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매생이>¹⁰⁸⁾

아빠의 ‘제웅’ 이야기에 할머니도 얘기 한 자루.
꼬깃꼬깃 구겨 넣은 종이돈을 집어내듯.
언제나 한가득 차 있는 할머니 얘기 주머니.

—이 할머니가 어릴 적엔 ‘매생이’란 게 있었지.
정월 열 나흘 밤에 팔을 한줌 갖고서 밭으로 간다.
제 나이수만큼 팔을 밭에 묻으며,
“매생아, 올 해엔 머리 아프고 배아픈 것 다 가져가거라.”
그러면, 그 해엔 틀림없이 병을 앓지 않았지.

—더러는 밭이 아닌 우물로 가기로 했었지.
팔을 제 나이 수대로 우물 안에 던지며,
“달앗 빠치자!” 하고 힘껏 외쳤어. 어떤 땐 동무들을
불러모아, 강강수월래 하드키 우물가를 빙빙 돌면서,
차례로 돌을 던지며, “달앗 빠치자!” 생각시, 달앗 받아라!
그러면 그 해엔 감쪽같이 다래끼를 앓지 않았어.

할머니 그 얘기를 잠자코 듣던 아빠가,
—그거와 비슷한 걸로 ‘방실놀이’란 게 있대요.
그렇게 실마리를 잡아 이야기를 풀어 낸다.

—저 남쪽 섬에 사는 사람들의 대보름날 풍습인대요.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길이 두 자쯤 되는
자그마한 배를 만들어 거기가 촛불이나 햇불 또는

108) 박경용, 매생이,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p54-55.

중지에 심지불을 밝혀 바다에 띄우고는,
“매생아 매생아, 올해의 액운을 다 실어 가고 영과 복을 가져오너라.”
하고 외친대요. 파도에 방실방실 웃는 듯이 나부끼며 떠가는 배를 향하여.
그 배를 ‘매생이 배’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할머니 아빠 그 얘기에 동생은 산난다지만
난 어쩐지 눈물 나더구나, 생각해 보렴, 동무야.
그까짓 다래끼 같은 길로 시달렸던 옛 사람들을.

약이나 병원이 귀했던 옛날, 작은 상처나 병에도 대처하는데 어려웠다.
따라서 건강하기를 빌며 복을 받길 바랐던, 갖가지 풍습과 속신 또한 많았
다. 위 시에는 지방마다 다른 설날과 대보름의 풍습과 속신을 알 수 있다.

<대추나무도 시집 보내고>¹⁰⁹⁾

엄마가 어렸을 때는 희한한 일도 많더라, 애.
글쎄 말이야, 히히, 얘기할까말까, 얘기할까말까
어쩌든! 대추나무를 시집 보냈는지 뭐니?

울엄마 옛 집에는 대추나무가 세 그루.
엄마의 할머니가 그들을 시집 보냈대.
해마다 음력 설날이나 정월 대보름날에.

나무를 어떻게 시집 보내느냐고?
히히, 그러게 말야. 그러니까 우습지.

109) 박경용, 대추나무도 시집 보내고,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p58-59.

그런데 말야, 정말은 하나도 우습지 않은 거야.

두 갈래로 뺏은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둔다는구나, 나무의 사타구니에.
할머니 치마꼬리 잡은 엄마 가슴이 뛰었대.

사람도 시집을 가야 아기를 낳지 않니?
나무도 시집 보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믿은 옛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니, 애.

위 동시는 설날이나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길 바라며 행했던, 정월 대보름 풍습의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풍습이 담겨있다.

(3) 입춘(立春)

<얼음새꽃>¹¹⁰⁾

누가
그 이름 불렀을까

겨울 끝자락
쌍인 눈 뚫고, 얼음새꽃
노란 얼굴 내민다.

사라락
눈바람 일어도

110) 강순예, 얼음새꽃,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칩표>, 우리말동시, 2015.

그 웃음 해사하다, 나비
오불오불 노랑나비……

손 내밀면
부시게 날아올라
호르 호르르르
나부델 넌,
다순 봄을
등에 업었구나.

입춘은 절기상 봄의 시작이 되었다.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경에 든다. 위 시에는 추위를 뚫고 나온 얼음새꽃을 통해, 봄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왔음을 말해준다. 겨울 끝자락 추위가 아직은 대지를 감싸고 있어도, 쌓인 눈을 뚫고 봄은 온다. 이 시는 계절의 순리와 주기적 순환을 말해준다.

(4) 경칩(驚蟄)

<경칩 지나 봄봄>¹¹¹⁾

소소리바람 불을 스치는
아직은 시린 봄이지만,

홍매화 얼음새꽃 새뜻한 웃음에
까무룩 긴 잠 개구리
진동한동 눈을 뜨고

111) 강순예, 경칩 지나 봄봄, 미발표 동시.

땅 속 벌레들도 꿈틀꿈틀 ...

봄비, 봄바람, 봄나들이...,
다사론 이름들이 속살속살.

눈 감고 가만..., ‘봄뽀!’ 하고 부르면,
곧 달려올 테죠, 두근두근 봄밤!

위 시는 24절기 가운데 벌레나 동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
다는 ‘경칩’을 나타내며, 봄이 깊어질 것이라는 설렘과 희망을 담고 있
다.

(5) 삼진날

<흥부네 봄 온다>¹¹²⁾

흥부네 봄 들어온다, 문을 열어라
사립짝 활짝 열고 봄맞이 하자
삼월이라 삼진날 따사로운 날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단다.
박씨 하나 물고서 찾아온단다.
흥부는 담 고치고, 아내는 장을 담네.
흥부네 아이들아 앞마당을 쓸어라
흥부네 아이들아 버들피리 불어라
흥부네 봄 들어온다, 문을 열어라

112) 강순예, 흥부네 봄 온다, 미발표 동시.

사립작 활짝 열고 봄맞이 하자꾸나.

<삼진날 무렵>¹¹³⁾

꽃샘바람 제아무리
변덕 심술 부려도

등성이의 할미꽃
고개나 약간 숙게 할 뿐

양지꽃
펼친 별자리
흘뜨리지는 못하지

흐트러진 머리를
살래살래 내세울 뿐

제비 오는 길목 지켜
결눈질해 설레며

호드기
꿈을 그리어
물 오른 버들가지.

겨우내 움츠렸던 건 사람이나 동물만이 아니다, 집도 얼었던 몸을 펴느라

113) 박경용, 삼진날 무렵, 셋강마을 숲동네, 2011, pp84-85.

움직거린다. 그 까닭에 삼진날에는 집도 담도, 손을 본다고 한다. 삼진날 무렵에는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 꽃샘바람이 시샘을 해도 봄은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삼월 삼진날 소재로 한, 위의 시 두 편에는 삼진날 행하는 세시풍속이 담겨있다. 삼진날은 맛있게 장을 담그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한다. 삼진날 남자 아이들은 물 잘 오른 버들가지를 꺾어 버들피리를 불며 놀고, 여자 아이들은 꽃놀이를 즐겼다.

(6) 춘분(春分)

<꽃물, 산들에 꽃물>¹¹⁴⁾

강아지가 될 거야,
고살고살 쏘다니는.

포슬포슬 따순 햇별
발름발름 말아보고
돌 틈 새뜻한 풀이랑
해밝게 눈 맞추고
마을 어귀 아릅드리나무
기대보고 안아주고…….

등굽잇길 돌아
야트막한 뒷산 재빠기에
올라앉으면

114) 강순예, 꽃물, 산들에 꽃물, 국립국어원 온라인소식지 <쉽표 마침표>, 우리말 동시, 2015, www.urimal365.kr

꽃그늘 아래
동그마니 앉은 친구에게
따사로운 봄 편지 찾아갈 테지.

저기, 저기 좀 봐.
봄 익는 소리에
온 산들이 수런수런.

<진달래 먹고>¹¹⁵⁾

온 산에
진달래 피고
온 산에 산에
진달래 진달래 피고
진달래 진달래 흐드러지고
진달래꽃 진달래꽃 따다가
진달래꽃전 만들고
진달래 진달래 먹고
진달래처럼 웃고
아하, 어느새
나도 진달래...

양력 3월 20경은 절기상 춘분이다.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니 양이 정동(正東)에 음이 정서(正西)에 있어 춘분이라고 한다. 밤과 낮의 길이가 반반이니, 추위와 더위도 같은 날¹¹⁶⁾이다. 온 산들에 꽃망울이

115) 강순예, 진달래 먹고, 미발표 동시

터지고, 자연이 완전한 봄을 이루어간다. 위 두 편의 시에서는 봄꽃놀이 가는 사람들로 산들이 수런수런 활자한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이 무렵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꽃잎을 따다가 꽃전, 꽃지짐을 해먹던 옛 풍습이 현대적으로 나타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풍습은 계속 되고 있다.

(7) 청명(淸明)

<날씨가 좋으니>¹¹⁷⁾

“허허, 하늘 푸르니 맘이 절로 부르구먼.
울 한해 풍년일세.”

할아버지 말씀에 할머니는
“아무렴요. 부지깽이만 꽃아도 짝이 날 텐데요.”

빙그레 웃으면서 울 아빠
“머잖아 오롱조롱 대추가 열리겠구나.”

어깨를 으쓱이며, 나는
대추나무 어린가지를 쓰다듬어요.

“도담도담 자라라, 내 나무야.”

청명은 양력 4월 5일 또는 6일경에 든다. 보통 식목일 전날이거나, 때론 겹치는 때도 있다. ‘청명’은 말 그대로 날씨가 맑고 밝은 날을 뜻한다.

11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sesi/Search.jsp/>

117) 강순예, 날씨가 좋으니, 미발표 동시.

우리 선조들은 청명에 날씨 점을 쳤다. 위 시에는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든다.’ 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때는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란다는 뜻의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튼다.’ 라는 속담이 있다. 또한 이 시에서 청명의 풍습으로 ‘내 나무’ 심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8) 한식(寒食)

<햇살 좋은 한식날에>¹¹⁸⁾

엄마랑 할머니
옷자란 쪽 쪽쪽 뜯어 담고
아빠랑 할아버지
쇠뜨기, 잡초 쪽쪽 뽑아내요.

묘비 깨끗이 닦아내고
병그레 웃는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시원하시지요?”

그 한마디에
줄흰나비 팔랑이고
수수꽃다리 꽃보라 이는,
햇살 좋은 한식날.

예전에는 한식을 큰 명절로 여기며, 제를 올렸다. 위 시는 한식을 맞아 가족이 함께 조상의 묘에 제를 올리고, 벌초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

118) 강순예, 햇살 좋은 한식날에, 미발표 동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창작 동시에 나타난 봄의 절기로는 입춘, 경칩, 춘분, 청명이 있고, 봄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과 1년 가운데 가장 큰 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 그리고 삼짱날과 한식이 있다.

창작 동시에서 나타난 봄의 세시풍습으로 설날의 세배, 삼짱날의 장 담그기, 집 고치기, 청명과 한식의 ‘내 나무’ 심기 등의 풍습을 볼 수 있다. 절식으로는 대보름의 오곡밥과 보름나물, 귀밝이술, 부럼, 삼짱날의 진달래꽃전이 있으며, 복식에는 색동옷과, 타래머선, 복주머니, 배씨 댕기, 도투락 댕기 등의 설빔이 있다. 놀이로는 설날과 대보름의 연날리기, 팽이치기, 널뛰기, 윷놀이, 삼짱날, 춘분의 버들피리 불기, 봄꽃놀이가 있으며, 설날과 보름날의 액을 막는 풍습인 더위팔기나 모기팔기, 복토 훑치기, 매생이, 샘물 대기 풍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복을 빌고,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며, 액을 멀리 보내고자 행했던 풍습과 풍년이 되길 바라는 풍습도 나타나 있다. 속신(俗信)¹¹⁹⁾을 믿어 날씨로 점을 치거나, 소리로 점을 치기도 했다, 봄을 소재로 한 창작 동시는 나와 가족 공동체의 한해 건강과 풍년, 복을 빌고, 액운을 멀리하고자 하는 세시풍속의 문화적 의미가 담겼다.

2) 여름의 세시풍속 문화

창작 동시에 나타난 여름의 중요한 명절로는 단오가 있다. 단오에 여자 아이들은 봉숭아 꽃물들이기를 했다.

1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속신(俗信)’은 ‘민간에서 행하는 미신적인 신앙 관습. 이에는 점, 금기, 민간요법, 주법(呪法) 따위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수릿날에>¹²⁰⁾

“수릿날 동네 아낙들이
이렇게 냇가에 모여
창포를 머리에 꽂고
창포물에 머리도 감았지.
윤기가 반드르르 했단다.”

“그네 타고 포르르
새처럼 날아오르면
호호, 어찌나 신이 나던지.
사내들은 씨름대회를 했어.”

“그때 먹던 수리취떡에 밀전병,
앵두화채는 또 어떻고……”

달력 어루만지며, 어느새
그림 속으로 들어가시네,
우리 할머니.

위 시에는 달력에 담긴 옛 단오의 풍경이 그려진다. 할머니 이야기 속에 살아있는 옛 단옷날, 여자들은 창포를 머리에 꽂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탔으며, 또한 남자들은 씨름놀이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단옷날에 절식으로 수리취떡에 밀전병, 앵두화채를 즐겨 먹었음을 말하고 있다.

120) 강순예. 수릿날에, 미발표 동시.

<여름방학>¹²¹⁾

단팍이랑 도란도란 평상에 누워
잠방잠방 하늘에 발을 담그면
발가락 새로 구름 두둥실,
휘파람새 호루루루 노래를 한다.

예주야, 우리 오늘 꽃물 들이자.
첫눈 올 때까지 남을,
바람 한 가지 오롯이 담아
설레는 마음까지 콩콩콩

봉숭아 꽃 짙어 손톱에 얹고
오래도록 바래지 않게
칭칭칭 실로 동이자.

단오, 하지(夏至) 무렵,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이 무렵부터 기온이 올라 몹시 더워진다. 봉숭아 꽃물들이기에 좋은 계절이다. 예로부터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 꽃물이 손톱에 남아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 시에서 그런 풍습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정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란도란 평상에 누워 / 잠방잠방 하늘에 발을 담그면’ 이라는 표현은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찬물에 발을 담그는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나타낸다.

121) 강순예, 여름방학,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칩표>, 우리말 동시, 201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창작 동시에 나타난 여름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는 단오가 있다. 창작 동시에 나타난 여름의 세시풍습으로 창포를 머리에 꽂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봉숭아 꽃물을 들이기가 있다. 절식에는 앵두화채와 밀전병, 수리치떡이 있으며, 놀이로는 남자들의 씨름놀이, 여자들의 그네타기가 나타나고 있다. 삼복의 무더위를 자연을 통해 지혜롭게 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3) 가을의 세시풍속 문화

(1) 칠석

<별을 켜는 밤>¹²²⁾

췌! 췌! 췌!
대낮처럼 밝은 밤
별들은 어디로 갔을까.

풀벌레 새들도 잠 잘 시간
전등불 하나 둘 눈 감아라.
꽃들도 나무도 잠 잘 시간
전등불 하나 둘 눈 감아라.

밤하늘 별들아 눈을 뜨고
새맑간 얼굴로 반짝여라.

122) 강순예 시, 송기영 곡, 부산작곡마당, 부산 금정문화회관, 2015, 11.

밤하늘 별들아 강을 이루고
은하수 다리를 놓아보자

전등불 하나 들 눈감아
밤하늘 별들아 반짝여라

불을 끄고
별을 켜요.

<은하수 다리 놓아>¹²³⁾

“건우는 소를 잘 모는 늙은 청년이었지.
어제도 이랴, 그제도 워어, 밭을 갈았네.
직녀는 베를 짜는 아름다운 처녀였어.
어제도 베틀에, 그제도 앉아 베를 짰다네.
처녀총각 시나브로 마음 살짝 오가더니
하던 일 뒷전이요 온 종일 사랑이네.
하늘님 노여워. 두 사람 갈라놓고는
일 년에 딱 한 번 만나게 하셨지.”

“칠석날 오는, 칠석비는
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란다.”

동생이랑 나랑 손 모아 기도했다,
별 반짝이는 밤에.

123) 강순예, 은하수 다리 놓아, 미발표 동시.

이 두 편의 시는 칠월 칠석 이야기가 배경으로 쓰였다. 이 시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를 통해 견우와 직녀를 만날 수 있다. 소를 잘 모는 견우와 베를 잘 짜는 직녀는 우리의 농경문화를 뜻한다. 일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그들을 위해 전등을 끄고 별을 밝혀, 은하수 다리를 놓자는 내용이 흥미롭다.

(2) 추석(秋夕)

<송편을 빚어요>¹²⁴⁾

술향기 함박 품은
송편을 빚어요.

밤, 대추, 팥, 잣, 통깨랑
그보다 더 고소한 웃음까지
한소끔 소로 넣어
송편을 빚어요.

술 내음 모락모락
익어 가는 달…….

아하, 저 달!
시루에서 휘영청
떠오른 달!

124) 강순예, 송편을 빚어요,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우리말 동시, 2015.

추석(秋夕)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팔월의 한 가운데,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으로, 우리 명절 중에 으뜸 명절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크다’ 라는 뜻의 ‘한’ 과 ‘가운데’ 라는 뜻이 ‘가위’ 가 붙어 ‘한가위’ 라고 한다. 추석에는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이 시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가위 음식, 즉 절식인 송편을 만들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의 모습이 나타난다.

(3) 추분(秋分)

<달 타는 날>¹²⁵⁾

홍부네 초가지붕에
별꽃처럼 환히 웃던 박꽃.

제비 다리 고쳐주고 받은 박 씨가
해 안고 달 품어
당글당글 당그르르
둥글둥글 둥그르르 영글었네!

한 번 보고 침만 꿀꺽
두 번 보기 아까웠을 하얀 달.

오늘은 무슨 날?
홍부네 박 타는 날!

125) 강순예, 달 타는 날, 국립국어원, <샘표 마칩표>, 우리말 동시, 2014.

동네방네 고살고살
울망졸망 아이들아 모두 모여라
물동이 내려놓고 콩쥐도 오너라
살랑살랑 강아지야 꼬리 흔들며
들랑대는 도둑 쥐야 너도 오너라

이 박을 얼른 타서
보글보글 박죽을 끓여 먹을까
쿵덕쿵덕 박떡을 찌서 먹을까
조물조물 박나물 무쳐 먹을까

살근살근 박을 타세,
슬근슬근 톱질 하세.
왁실덕실 왁자그르르
온 마을 당실당실 잔치를 여네.

추분은 절기상 앞서 설명한 ‘춘분’ 과 같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모두 이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본다. 이 날을 기점으로 점차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 수확의 계절에 접어들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온갖 곡식을 무르익게 한 모든 것에 고마움과 기쁨을 전하는 시기이다. 이 시에는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수확의 기쁨 또한 함께 나누고자 했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냈다.

(4) 상강(霜降)

<상강 오기 전에>¹²⁶⁾

할머니랑 엄마랑 온종일
호박오가리 만들고
가지 길게 갈라 넣고
무도 썰어 말립니다.

햇볕에 암전히 몸 말리던 깃단
할아버지 도리깨질에
톡톡 까불며 깨알 웃음 쏟아냅니다.

가을 끝자락 들판엔
저요, 저요!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늦가을 뒤란>¹²⁷⁾

따로 나뉘어서 제가꿈
제 몫을 하던 것들이
마침내 제 값을 다 하려
한자리에 모인
뒤란

메주로 거듭난 콩과

126) 강순예, 「들일을 마치고」, 미발표 동시.

127) 박경용, 늦가을 뒤란, 셋강마을 숲동네, 2011, pp54-55.

분가루처럼 고운 밀과
엿기름으로 탈바꿈한 보리와
부시게 곱삭은 고추는
일찌감치 하나로 영기어
된장 고추장 밥장 시금장 막장
그리고 또 간장으로
크고 작은 독에서 저마다
진작 맛깔나게 익어 있는
장독대 곁에

무서리 내린 어제부터
텃밭, 또는 남새밭에서 온
새 얼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자리에서 만났다.
더러는 맷방석에
더러는 항아리와 함지박에
또 더러는 소쿠리에

속이 찬 배추와
실팍한 무
빛깔도 아린
알 마늘과 가루 고추
미끈한 파와
토실한 생강
푹푹한 갖과
살찐 미나리
팍팍한 비탈밭에서도 용케

단단한 살로 여문 열무.

머지않아 몸을 섞을 그들이
다른 이름의
제 모습으로 태어나려
뜻 깊은 한때를
만나 있는 자리.

예저기 주렁주렁 걸려있는
호박말림 가지말림 무청말림 우거지가
김장 일손 기다리는 그들을
부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바람자고 별살 다사로운
늦가을 뒤란.

상강은 음력 9월, 양력으로는 10월에 든다. 상강은 절기상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며, 온 산들에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상강 무렵 농가에서는 거둬들여야 할 것들로 분주하다. 또한 거둬들인 농작물을 말리기에 좋은 계절로 농촌의 손길은 바쁘다. 위 시에서는 가을 꼬트머리 추수로 바쁜 농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농가는 이제 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상으로 창작 동시에서 나타난 가을의 세시풍속 문화를 살펴보면, 가을의 절기로는 추분. 상강이 있고, 가을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는 칠석과 한가위(추석)가 있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준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감사의 계절임을 말해준다. 일 년 중 가장 달이 밝은 한가위 보름달에 가족들의 소망을 담은 모습과 찬 서리가 내리기 전, 입동이 오기 전 늦은 가을걸이로 바쁜 농촌의 모습이 담겼다. 또한 들깨를 털고, 햅쌀로 송편을 만드는 풍습

을 다뤘으며, 호박이나 콩 등을 거뒀는데 떡이나 전을 만들어 먹는 가을의 절식이 나타나고 있다.

4) 겨울의 세시풍속 문화

(1) 입동(立冬)

<야, 겨울 온다>¹²⁸⁾

제비 떠나가고 기러기 돌아왔다.
맥문동은 어느새 보라 촛불 거뒀는데
쑥부쟁이 아직도 방그레 웃어 걱정이다, 걱정.

길쭉 나무들이 따스운 옷을 입어라.
살진 미꾸리들이 도랑 깊이 숨어라.
오소리랑 너구리는 긴 잠에 든단다.

첫눈아 내려라 달보드레 내려라.
개구쟁이 꺾가에 사락사락 내려라.
쪼그마한 콧잔등에 간질간질 내려라.

첫눈아 앉아라 살포시 앉아라
불 빨간 애 얼굴에 사부랑삼작 앉아라
오목 팬 불우물에 꽃인 듯 앉아라.
손톱 끝 봉숭아꽃물에 별인 듯 앉아라.

128) 강순예, 야, 겨울 온다, 국립국어원, <쉽표 마칩표>, 우리말 동시, 2014.

나뭇잎 오소소소
온 마을 소붓소붓
걸음마다 바사사삭

야, 온다!
겨울이 온다야!

입동(立冬)이 되면 절기상 겨울에 들어선다.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입동’ 이라고 한다. 이제 겨우살이 채비를 꾸려야 할 때이다.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한다. 오소리와 너구리는 겨울잠에 들 것이고, 미꾸라지는 진흙 깊이 숨어야 한다. 이 무렵, 통통히 살진 미꾸라지를 절식으로 먹었다. 이 풍습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한 분주한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2) 동지(冬至)

<동지 맞이>¹²⁹⁾

바람 불어요 된바람
시월상달 손돌바람보다 더
맷디매운 높바람
고살고살 헤집고 다녀요.
빈 깡통 걷어차고 비닐봉지 날리며
까불다 자빠지고 나동그라지고

129) 강순예, 동지 맞이,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우리말 동시, 2014.

그러든지 말든지, 몽실몽실
뽀얀 김 피워 올리며
팔죽 보글보글 익어 가고요
동생과 나 생그레 웃으며
엄마 얼굴 말긋말긋 쳐다봅니다.

윗목엔 메주가 익어 가고요.
아랫목엔 도란도란 우리 식구
밤 길고 낮 짧은 동지 손님 맞아요.

“동지 팔죽 내게도 노나 주지.”
후웅 달캉달캉 우우웅
바람이 창문 잡고 칭얼댁니다.

동지 팔죽 새알심 한 알에
나이 한 살 더하면
긴긴 밤 도깨비도 무섭지 않고
나는 좀 더 자라겠지요.

동지는 일 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양력 12월 22일 무렵이다. 옛날에는 이날 뒤로 다음해가 시작된다고 하여, ‘작은설’ 130)이라고 부르며 설날 다음 가는 명절로 지냈다. 동짓날에는 팔

130) 국립민속박물관장 친진기는 ‘세시의 어제와 오늘(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연구소 주제 학술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동지가 왜 작은설인가?

절기와 예법의 기준이 되었던 중국 주나라에서 동지를 설로 삼았다. 당나라 역법서(曆法書)인 선명력(宣明曆)에서 동지를 역(曆)의 시작으로 보았다. 우리의 경우에도 고려 때까지 선명력을 썼기에 고려 말 충선왕 복위 원년(1309)에 원의 수시력(授時曆)으로 바뀌기 전까지 동지가 곧 설이었다.”

죽을 쑤어 온가족 또는 이웃과 나눠 먹었는데, 팔의 붉은색이 집안의 나쁜 것을 물리쳐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예전에는 동짓날에 장독에도 헛간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팔죽 한 그릇을 올렸다. 또한 동지 팔죽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믿었다.

(3) 대한(大寒)

<도담도담>¹³¹⁾

밤새 내린 눈,
소복소복 쌓인 아침.

“춥다, 고별 들라.”
할머닌 걱정하지만

“겨울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도담도담 자라는 게야.”
할아버지 말씀에 어깨를 짝 펴요.

텐바람 높바람 썩썩 분대도
저프지 않아요, 터럭만큼도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할래요
포대 자루 깔고

131) 강순예, 도담도담, 국립국어원, <쉽표 마칩표>, 우리말 동시, 2015.

미끄럼도 탈 거예요.

“야, 볼 빨간 애. 놀자!”

봐요, 친구들이 밖에서 부르는 걸요.

<추위쫄이야>¹³²⁾

어른들은 찢찢때는
추위쫄이야 까짓 것!
앵돌아지기 잘하는
시샘 많은 내 짝이다.
어르고 살살 달래어
테리고 놀밖에는.

오늘은 뽕이를 돌린다
잘 여문 얼음판에서.
한밤 새 언 손 녹혀 와
내일도 어울려 놀란다.
추위쫄!

같이 놀다 빠져 돌아선
내 짝이다, 샘 많은.

일 년 가운데 가장 추운 날이라는 절기상 대만에 관련된 시이다. 위 두
편의 시에는 아무리 추위가 닥쳐도,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더위에도 매

132) 박경용, 추위쫄이야,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p13.

서운 추위에도 잘 놀면서 잘 자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선달그믐

<선달 그믐날 밤에>¹³³⁾

그믐밤에 잠자면 눈썹이 센다 하신
아빠 말씀 끝이듣고 잠들지 않으려고
감기는 눈을 비비며 비비며 안간힘을 썼건만.

아침에 눈뜨자마자 거울을 들여다보았더니
아, 정말! 내 눈썹이 하얗게 세어 있잖겠니?
난 그만 분하고 억울해서 앙앙 울고 말았단다.

삼촌이 쫓쫓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손가락으로 눈썹을 문질러 보아라.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어 눈썹을 만져 보았지.

눈썹을 하얗게 한 건 고운 밀가루였어.
히히히! 나도 모르게 터전온 웃음 소리.
식구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내 웃음 따라 하하하!

그제사 정신 차리고 바깥을 내다보아더니
소담스런 눈송이가 마약 내리고 있었어.
하얗게 가짜로 세었던 내 눈썹과 같은 눈이…….

133) 박경용, 선달 그믐날 밤에, 별 흥흥 초가집 흥흥, 서문당, 1980, pp42-43.

앞의 시는 선달그믐 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는 속신을 믿어, 잠
들지 않으려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정겨운 가족 분위기가 느껴진다. 예전
또 그 예전에서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의 선달그믐 밤 풍습이 한눈에 보인
다.

<선달그믐 밤>¹³⁴⁾

“오늘밤에 온단다, 신 없는 아이.
고살마다 집집마다 들어가
이 신발 저 신발 죄다 신어보곤
맞갖은 걸 골라, 하무뭇 해낙낙
홀딱 신고 가버리는…….”

할머니 말씀에
동생 눈 내 눈 뚱그래진다.
“정, 정말요?”

“이렇게 문 앞에 체를 걸어두면
수 세기 좋아하는 그 아이,
요 촌촌한 구멍을 세다가, 세다가, 세다…,
동살이 잡힐 무렵 ‘아이코, 내 신발!’ 하며 돌아간단다.”

“밤 오면 또다시 안 오나요?”
“안 오긴, 이듬해에 또 오지!”

깊은 밤 문 앞에 살며시

134) 강순예, 선달그믐 밤,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우리말 동시, 2016.

내다 놓았다.

“작아서 안 신는 신발이야. 맘에 들면 가져가렴.”

선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위 시는 하늘에서 내려와 아이들의 신을 신어보고, 발에 꼭 맞는 신을 신고 가져간다는 신발귀신 야광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 세기를 좋아하는 신발귀신이 체의 구멍을 세고 또 세다가 날이 밝자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신발을 문밖에 내 놓는 아이의 마음에서 나눔의 정서가 느껴진다. 또한 “밤 오면 또다시 안 오나요? / 안 오긴, 이듬해에 또 오지!”라는 대화에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며 전승적인 우리의 세시풍속 문화를 읽을 수 있다.

이상으로 창작 동시에서 나타난 겨울의 세시풍속 문화를 살펴보면, 겨울의 절기로는 입동과 동지, 대한이 있다. 겨울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는 절기이자 명절에 해당되는 동지가 있다. 그리고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연결하는 선달그믐이 있다. 창작 동시에서 나타난 겨울의 절식에는 동지에 새알심 넣은 팔죽이 있으며, 동지팔죽으로 액운을 멀리하고자 풍습이 담겼다. 집안 윗목에 메주가 익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어른이 되고픈 옛 아이들의 모습과 선달그믐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수세’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롭게 밝은 한 해가 시작됨을 지켜보는, 주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집집마다 불을 환하게 밝히고 새해를 맞은 준비를 하는, 수세를 하였다 선달그믐의 수세하는 풍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풍요와 건강을 바라며, 새해를 맞는 데 뜻을 둔다.

2.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문화적 양상

본 연구는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지키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높은 세시풍속을 ‘창작 동시’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문화콘텐츠로 저변 확대하기 위해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 창작 동시 35편에 나타난 계절별 절기·명절의 세시풍속 문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8>과 같다.

창작 동시를 계절별 절기·명절로 분석한 결과 봄의 절기·명절로는 설 5편, 대보름 8편, 입춘, 1편, 삼짱날 2편, 춘분 2편, 청명 1편, 한식 1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보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 춘분, 삼짱날이 그 뒤를 이었다. 여름의 절기·명절로는 단오가 2편이이었으며, 가을의 절기·명절로는 칠석 2편, 추석 1편, 추분 1편, 상강 2편이었다. 겨울의 절기·명절로는 입동 1편, 동지 1편, 대한 2편, 선달그믐 2편으로, 대한과 선달그믐이 각 2편이었다.

다음으로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 문화를 풍습, 절식, 복식, 놀이로 분석한 결과 풍습 31편, 절식 7편, 복식 3편, 놀이 11편이었다. 이 가운데 풍습에 있어서는 봄이 19편(설 5편, 대보름 8편, 삼짱날 2편, 춘분 2편, 청명 1편, 한식 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의 풍습은 2편(단오 2편), 가을의 풍습은 6편(칠석 2편, 추석 1편, 추분 1편, 상강 2편)이었다. 겨울의 풍습은 4편(입동 1편, 동지 1편, 선달그믐 2편)에서 나타났다. 절식에 관련해서는 봄 3편(대보름 2편, 춘분 1편), 여름 1편(단오 1편), 가을 2편(추석 1편, 춘분 1편), 겨울 1편(동지 1편)으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복식은 봄 3편(설 3편)에서 나타났으며, 놀이에서는 봄 7편(설 1편, 대보름 5편, 춘분 1편), 여름 2편(단오 2편), 가을 1편(칠석 1편), 겨울 4편(대한 2편, 선달그믐 2편)에서 세시풍속 문화가 반영되었다.

<표8> 창작 동시에 나타난 계절별 절기·명절의 세시풍속 문화

계절	절기 명절	시 제목	시 편수	풍습	절식	복식	놀이
봄	설	잠은 안 오고	5	○		○	
		해의 설 달의 설		○		○	
		신발 도둑 귀신		○		○	
		새 소리 들으러		○			
		널뛰기 그 노랫말엔		○			○
	대보름	대보름 무렵	8	○			○
		대보름 날에		○	○		○
		귀밝이 술		○	○		
		흠칠 것도 없어서		○			
		액막이를 보내고		○			
		모기도 팔고 더위도 팔고		○			○
		매생이		○			○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			○		
	입춘	얼음새꽃	1				
	경칩	경칩 지나 봄봄	1				
삼진날	흥부네 봄 온다	2	○				
	삼진날 무렵		○				
춘분	꽃물, 산들에 꽃물	2	○	○		○	
	진달래 먹고		○				
청명	날씨가 좋으니	1	○				
한식	햇살 좋은 한식 날에	1	○				
봄 합계 21편			21	19	3	3	7
여름	단오	수릿날에	2	○	○		○
		여름방학		○			○
여름 합계 2편			2	2	1	2	
가을	칠석	별을 켜는 밤	2	○			
		은하수 다리 놓아		○			○
	추석	송편을 빚어요	1	○	○		
	추분	달 타는 날	1	○	○		
	상강	상강 오기 전에	2	○			
늦가을 뒤란		○					
가을 합계 6편			6	6	2	1	
겨울	입동	야, 겨울 온다	1	○			
	동지	동지 맛이	1	○	○		
	대한	도담도담	2				○
		추위 째이야.					○
	선달	선달그믐	2	○			○
선달그믐 밤		○				○	
겨울 합계 6편			6	4	1	4	
합 계			35	31	7	3	14

이상으로 보아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문화적 양상은 계절로는 봄의 세시풍속에 관한 창작 동시가 많으며, 다음으로는 가을과 겨울, 그리고 여름 순이었다.

명절로는 봄의 대보름과 설날에 관한 동시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의 삼짇날, 여름의 단오, 가을의 칠석, 겨울의 설달이 각 2편씩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공통적으로 풍습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 설은 복식을, 대보름은 절식과 놀이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가운데 단오는 절식과 놀이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한식과 추석에 관한 창작 동시는 각 1편씩 쓰였고, 세시기에 기록되어진 명절인 초파일, 유두, 백중, 중양, 납일에 관한 창작 동시는 아직까지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고유의 명절과 관련하여 풍습, 절식, 복식, 놀이 등 세시풍속의 문화적 콘텐츠를 반영하는 창작 동시 저작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절기 면에서는 봄의 절기 4개(입춘, 경칩, 춘분, 청명), 가을은 2개 절기(추분, 상강), 겨울은 3개 절기(입동, 동지, 대한)로 24절기 가운데 9개 절기에 관한 창작 동시가 있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절기를 소재로 한 창작 동시가 쓰여 세시문화와 연관된 절기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을 이해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가치와 방안

1.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가치

우리 민족은 희로애락을 문화와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문화민족이었다. 그 중심에는 오랜 세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전승되어 온 우리의 세시풍속이 있고, 우리의 이러한 문화는 오늘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을 보면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니, 나라 안의 읍락(邑落)에서는 밤에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서로를 좇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고 하였다. 이는 고구려 무용총벽화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2).

『구당서(舊唐書)』¹³⁵⁾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콘텐츠 활용의 실재를 확인 할 수 있다.

고려의 악공인(樂工人)은 새 깃으로 장식한 자라모(紫羅帽)를 쓰고, 황색 큰소매에 자라대(紫羅帶)를 띠고, 대구고(大口袴)의 옷을 입고, 오색끈으로 맨 적피화(赤皮靴)를 신었다. 춤추는 네 사람은 쪽을 뒤로 돌리고, 금당(金璫)으로 장식한 강말액(絳抹額)을 썼으며, 그 중 두 명은 황군유(黃裙襦)와 적황고(赤黃袴)를 입었다. 나머지 두 명은 적황군유고(赤黃裙襦袴)를 입었고, 이들의 소매는 아주 길었으며, 모두 오피화(烏皮靴)를 신었으니, 쌍쌍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추었다.¹³⁶⁾

135) 1060년 송(宋)에서 편찬한 당(唐 618~907년)의 역사책.

136)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歌戲(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2003.

高麗樂工人, 紫羅帽, 飾以鳥羽, 黃大袖, 紫羅帶, 大口袴, 赤皮靴, 五色綵繩.

舞者四人, 椎髻於後, 以絳抹額, 飾以金璫. 二人黃裙襦, 赤黃袴, 極長其袖,

烏皮靴, 雙雙並立而舞.



<그림2> 무용총 벽화에 묘사된 고구려인들

출처: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

우리의 세시풍속은 사회적 문화 환경과 시대의 변모 과정에서 그 의미나 풍속이 변용되기도 하고, 행사 자체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세시풍속인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은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가 변모되면서 도시생활을 중심으로 한 ‘데이 시리즈’¹³⁷⁾가 새로운 세시풍속으로 혼용되어 나타나고도 있다. 우리의 세시풍속이 음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공감을 얻기에 다소 어려우나,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데이 시리즈는 누구에게나 쉽게 공감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¹³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공동체 보다는 개인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 사이에서도 관심을 더해가는 추세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고유의 뿌리를 세시풍속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숫자 1이 겹쳐 의미를 둔 빼빼로데이에 주고받는 과자를 떡으로 대체하는 ‘가래떡데이’로 바꾸는 등의 콘텐츠도 생겼으며, 한복을

137) 다이어리데이(1.14.), 밸런타인데이(2.14.), 화이트데이(3.14.), 빼빼로데이(11.11.) 등 특정한 숫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함.

138) 주영애, 세시풍속과 데이 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제32장 2015, 5, pp375-400.

특정한 날이 아닌,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가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민속은 과거시제가 아니라 현재시제이며, 미래시제로도 연결된다. 과거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후대(後代)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래는 과거에서 만들어진다.¹³⁹⁾

과거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세시풍속이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선 현재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시풍속이 담긴 창작 동시는 오늘을 사는 세대들이 세시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통로로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세시에 담긴 전통문화를 콘텐츠화 한다면 문화적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창작 동시의 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이에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가치를 정리하면 첫째, 세시풍속 창작 동시는 독자의 대상이 어린이는 물론 어른과도 함께 공감하고 소통을 나누도록 이끌 수 있다. 창작동시의 언어적 표현은 음률적 가사처럼 전달되기 때문에 세대 간 소통과 공감으로 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세시풍속 창작 동시는 자연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선조들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된다. 창작 동시에 담긴 풍습, 놀이, 복식, 음식 등에 관한 세시풍속은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유물이 아닌 지금도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게끔 할 수 있다.

셋째, 세시풍속 창작동시를 통합예술문화의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저변 확대함에 있어 특히 동시는 함축미와 음악성에서 매우 매력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케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이다.

139) 천진기, 세시(歲時)의 어제와 오늘,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5, p20.

2.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적 활용 방안

1) 공익적 활용

세시풍속 창작 동시는 공익적인 면에서 공공 게시물로 활용될 수 있다. 지하철 안전문·버스 정류장, 마을 벽화나 공공기관 내외 벽 등에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를 게재하여 많은 이들과 세시 동시로 우리 문화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지하철 안전문이나 버스 정류장에 시가 게재¹⁴⁰⁾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를 접하거나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마주 하게 되는 한 편의 시가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 또는 문화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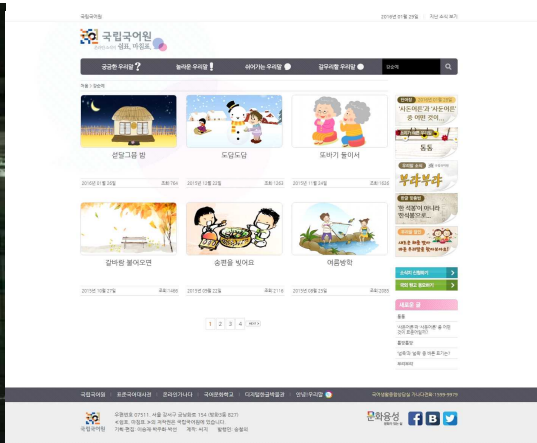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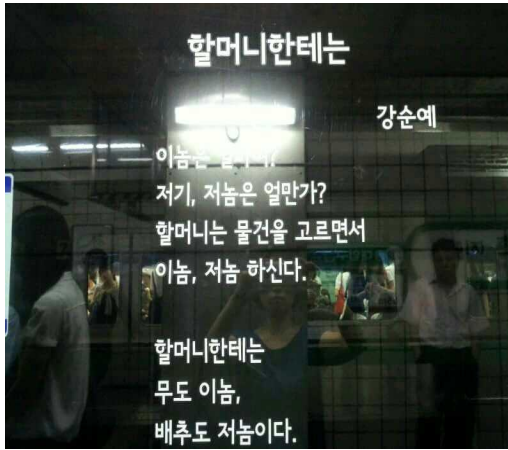
둘째, 세시가 담긴 창작 동시가 마을 벽화에 이용되면 마을 주민에게는 마을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역할과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우리 세시에 대한 친근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를 공공기관의 내외 벽이나 인터넷 정보로 공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세시를 알리는 공공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세시풍속이 담긴 창작 동시의 공익적 활용은 우리 문화 속에서 가족,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정체성을 느끼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를 통해, 어린이를 비롯하여 어른들에게까지 누구나 함께 우리 세시를 느끼도록 활용하는 방안인 것이다(그림3).

140) 서울시는 ‘시가 흐르는 서울’을 통해 2016년 현재까지 지하철안전문에 다양한 시를 게재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시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6년 4월, 시민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를 지하철안전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2016, 4, 18.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41800109>



<그림3>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공익적 활용

위 왼쪽 사진 출처: 천선옥, 지하철 안전문 게재된 창작동시, 2012.¹⁴¹⁾
 위 오른쪽 사진 출처: 국립국어원 누리집, <쉽표 마침표> 게시물
 아래 왼쪽과 오른쪽 사진 출처: 김나영,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2016.

141) 할머니한테는(동시), 2호선 신촌·답십리역, 3호선 도곡·마곡역, 5호선 공덕·영등포구청역.

2) 교육적 활용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교육적 활용은 창작 동시를 통해, 우리 세시에 담긴 유래를 알고, 풍습, 음식에 담긴 이치를 깨닫고, 흥미로운 놀이 문화 체험은 물론, 자연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선조들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된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시풍속 창작 동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이르는 교육 현장 등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교과과정과 접목 수업으로 동시를 활용하거나 세시풍속 창작 동시를 연계한 박물관 체험¹⁴²⁾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성해볼 수 있다.

둘째, 세시풍속의 풍습이나 속신 등을 문화스토리텔링¹⁴³⁾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세시의 풍습·속신 등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웹툰으로 구성¹⁴⁴⁾하여 교육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 그림전, 세시를 담은 글쓰기, 노랫말 공모전 등의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시가 담긴 창작 동시와 동요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한글학교에도 널리 보급하여 우리 문화, 우리 세시를 교육하고 알리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실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창작 동시 <송편을 빚어요>를 통해 국내 학

142)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index.nfm>

케이스타일허브: <http://www.k-cel.kr/kstyle/intro.do>

143)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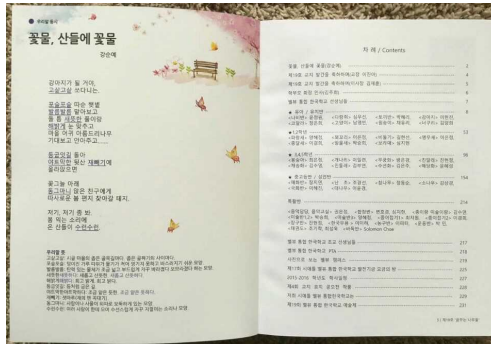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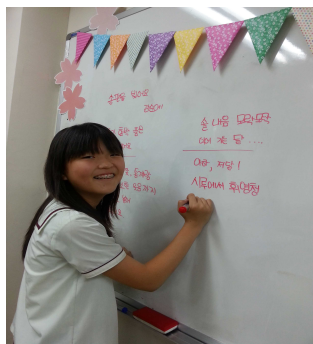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알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구전으로만 전달되던 이야기들이 현재는 텍스트만이 아닌,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만들어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하였다.

http://www.mcst.go.kr/web/s_culture/story/storyTellingList.jsp

144) 신과 함께: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19877>

2010년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주호민의 『신과 함께』는 우리 신화(이승·저승의 신 등)를 소재로 한 웹툰으로 네티즌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뮤지컬로 무대에 오르고 영화 개봉까지 앞두고 있으며, 원작이 만화 강국인 일본에 수출되었다.

교 현장에서 우리 세시와 한가위 절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활용(그림①)하거나 <꽃물 산들에 꽃물>이 국외 한국학교 문예지에 실린 사례(그림②)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시애틀 벨뷰통합 한국학교(교장 이진아)¹⁴⁵⁾의 경우에는 사라져가고 잊혀가는 우리 세시풍속을 되살리고¹⁴⁶⁾, 건강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전교생이 참가한 우리문화 예술제를 연다. 한글보다 영어에 익숙한 현지 어린이에게 동시와 동요가 주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그림4).



<그림4>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교육적 활용

위 사진 출처: 윤혜성(교사), 미국 시애틀 벨뷰통합 한국학교 예술제, 2016. 6.
 아래 왼쪽 사진 출처: 이오자(지도교사), 김세연(서울예일초등학교 5학년), 2015.
 아래 오른쪽 사진 출처: 윤혜성(교사), 시애틀 벨뷰통합 한국학교 문예지, 2016. 6.

145) 벨뷰통합 한국학교(미국 시애틀)

<https://www.facebook.com/United-Bellevue-KS-356616041212390/?fref=ts>

146) 채외동포뉴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361>

3) 문화예술적 활용

세시가 담긴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은 시를 매개로 우리의 세시를 다양한 분야로 저변 확대할 통합 문화예술콘텐츠로 사료되는 바다. 세시풍속 창작 동시는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전시, 인문학 공연, 멋글씨(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2015년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술제에서는 “세시를 담다”라는 주제로 찾자리 경연대회를 열었다. 음악과 세시에 관한 이론적 강의, 세시풍속 관련 연구 논문 발표, 사계절을 주제로 한 세시 동시(강순예, 봄여름가을겨울 우리말 동시) 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그림5).

둘째, 세시풍속이 담긴 옛 선조 문인들의 시와 고구려 벽화¹⁴⁷⁾ 또는 옛 그림 등을 접목하면 통합 문화콘텐츠로도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본다(그림6).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인 ‘별을 켜는 밤’과 ‘은하수 다리 놓아’는 칠월 칠석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콘텐츠화한 노래이다. 이를 볼거리가 풍성한 인문과 예술이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그림7,8,9).

넷째, 세시가 담긴 창작 동시를 활용한 멋글씨는 동시에 담긴 세시풍속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대상인 세시풍속 창작 동시 <꽃물, 산들에 꽃물>, 설날을 배경으로 한 <잠은 안 오고>의 일부 내용과 대보름을 배경으로 한 <보름날 더위사기>을 활용한 콘텐츠를 멋글씨(캘리그래피)로 활용하여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작품은 우리 세시와 우리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성과가 될 수 있다(그림10,11).

147) 고구려 시대의 벽화, 덕흥리. 왼쪽으로 소를 끌고 가는 남자, 견우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 베를 짜는 여자, 직녀가 있다.



2015년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예술제, “세시를 담다”



여고시절 친구들과 맞이한
봄날의 찻자리



별 헤는 밤
여름의 세시풍속 ‘칠월칠석’



추석, 가족찻자리
가을의 세시풍속 ‘한가위’



어머니를 그리며 올리는 찻자리
겨울의 세시풍속 ‘동지’

<그림5>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예술제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생활문화콘텐츠경연대회 ‘차, 계절을 담다148)’

148)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술제 관련기사
대학저널: <http://blog.naver.com/asecomm/220483847514>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96979>



<그림6>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옛 그림
 출처: 고구려 벽화 속의 견우와 직녀.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



<그림7>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연주회
 출처: 부산작곡마당, 부산 금정문화회관(2015)
 칠월칠석을 주제로 한 노래(별을 켜는 밤, 강순예 동시, 송기영 작곡)를 발표한 연주회

별을 켜는 밤

강순예 시, 송기영 작곡

$\text{♩} = \text{c. } 70$

4
 췌, 췌, 췌! 대낮처럼 밝은 밤 췌, 췌,

10
 췌! 별들은 어디로 갔을까 췌, 췌, 췌! 대낮처럼

16
 밝-은 밤 별들은 어-디 로 갔을 까

$\text{♩} = \text{c. } 80$ (풀 - 별 레 새 - 들 도)

23
 풀 별 레 새 들 도 잠 을 잘 시 -
 꽃 들 도 나 무 도 (꽃 - 들 도 나 - 무 도)

29 (소 록 소 록 잠 잘 시 간)

간 전 등 불 하나 들 (전 - 등 불 하나 들)

35
 눈 감 아 라 (꼭 꼭 감 아 라) 밤 하 늘 별 들
 (두 - 눈 을 뜨 - 고
 (강 - 물 을 인 - 루

41 (밤 - 하 늘 별 - 들 아)

아 두 눈 을 뜨 고 서
 강 을 이 루 - 고

<그림8>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악보 '별을 켜는 밤'
 출처: 부산작곡마당, 부산금정문화회관(2015)

47 서) 고)

새 말 간 얼굴 로 (새 - 말 간 얼굴) 반 짝 여
은 하 수 다 리 를 (은 - 하 수 다-리) 를 놓 아 보

$\text{♩} = c.. 70$ 솔로 권장 (~66마디)

53

라 (반 짝 반 짝 여 라) 전 등 불 하나 둘 눈 감 아
자 (놓 아 놓 아 보 자)

59

밤하늘 별들이 반 짝 여 라 전 등 불 하나 둘 눈 감 아 라 별들이 온 누리 반 짝 여 라

a tempo

65 *rit.*

췌, 췌, 췌!

71

대낮 처 럼 밝 은 밤 췌, 췌, 췌! 별 들 은 어 디 로 갔 을 까

77

췌, 췌, 췌! 대낮 처 럼 밝 - 은 밤 별 들 은 어 - 디 로 갔 을

83 *rit.*

까 불 을 끄 고 별 을

89

췌 요

<그림 8> 계속

은하수 다리 놓아

강순예 시, 송기영 곡

흥겹게 ♩=90



건 우는 소를 모는 늑 - 림 한 - 청 년
직 너는 배를 짜는 아 - 림 다 운 처 너



5
논 으로 밭 으로 다 니 면 서 열 심 히 농 사 짓 네
어 제 도 오 늘 도 배 틀 에 서 열 심 히 배 를 짜 네



9
이 라 워 털 커 텅 쿵 덕 그 러 던 어 - 느 날



13
rit.
이 라 워 털 커 텅 쿵 덕 둘 이 서 눈 맞 았 네



17
a tempo
하 던 일 내 팽 개 치 고 사 - 랑 놀 음 이 네



21
에 - 야 디 - 야 사 랑 이 로 구 나 사 랑 사 랑 사 랑 내 사 - 랑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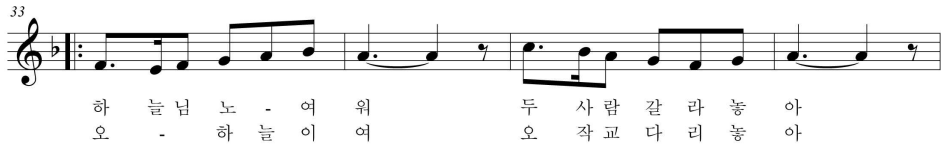


25
어 - 화 동 - 동 내 사 랑 이 로 다 사 랑 사 랑 사 랑 내 사 - 랑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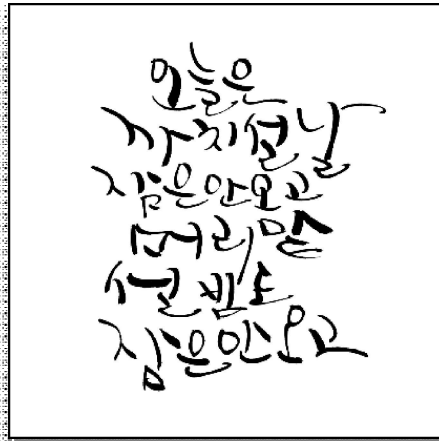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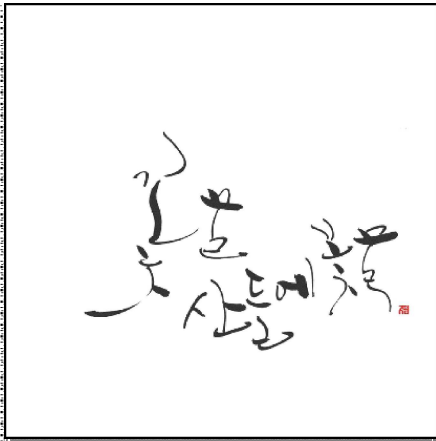
Copyright©2016 송기영 & 강순예 All Rights Reserved

<그림9>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악보 '은하수 다리 놓아'

출처: 부산 작곡마당, 부산금정문화회관 (2015)



<그림9> 계속



<그림10> 세시풍속 창작 동시의 문화예술적 활용 멋글씨

위 사진 출처: 김대규, 지인심 캘리그래피.¹⁴⁹⁾

아래 사진 출처: 부산 방과제, '보름날 더위사기(강순예 시), 2003.

149) 김대규: 한글을 아름답게 쓰는 한글 멋글씨 예술가. 지인심캘리그래피
우리말 멋글씨를 비롯, 한글 멋글씨로 공예품 제작, 교육, 행사 등 한글문화
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www.zisc.co.kr).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담은 창작동시 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문화적 양상을 파악하고 창작 동시를 매개체로 전통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높은 세시풍속을 ‘창작 동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콘텐츠로 저변 확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계절 열두 달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세시풍속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 본 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출간한 『조선대세시기』 I, II, III, IV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을 바탕으로 세시풍속의 절기와 명절을 분류하였다. 또한 세시풍속에 관련된 창작 동시 35편(박경용 15편, 강순예 20편)을 분석대상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들 분석 대상 창작 동시 35편의 문화적 양상을 계절별, 절기·명절별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창작 동시에 나타난 절기·명절의 풍습, 복식, 음식, 놀이를 고찰하였다.

분석대상 세시풍속 창작 동시 35편에 나타난 계절별 절기·명절의 문화적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 동시를 계절별 절기·명절로 분석한 결과 봄의 절기·명절로는 설 5편, 대보름 8편, 입춘, 1편, 삼짇날 2편, 춘분 2편, 청명 1편, 한식 1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보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 춘분, 삼짇날이 그 뒤를 이었다. 여름의 절기·명절로는 단오가 2편이었으며, 가을의 절기·명절로는 칠석 2편, 추석 1편, 추분 1편, 상강 2편이었다. 겨울의 절기·명절로는 입동 1편, 동지 1편, 대한 2편, 선달그믐 2편으로, 대한과 선달그믐이 각 2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 문화를 풍습, 절식, 복식, 놀이로 분

석한 결과 풍습 31편, 절식 7편, 복식 3편, 놀이 14편이었다. 이 가운데 풍습에 있어서는 봄이 19편(설 5편, 대보름 8편, 삼짇날 2편, 춘분 2편, 청명 1편, 한식 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의 풍습은 2편(단오 2편), 가을의 풍습은 6편(칠석 2편, 추석 1편, 추분 1편, 상강 2편)이었다. 겨울의 풍습은 4편(입동 1편, 동지 1편, 설달그믐 2편)에서 나타났다. 절식에 관해서는 봄 3편(대보름 2편, 춘분 1편), 여름 1편(단오 1편), 가을 2편(추석 1편, 춘분 1편), 겨울 1편(동지 1편)으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복식은 봄 3편(설 3편)에서 나타났으며, 놀이에 있어서는 봄 7편(설 1편, 대보름 5편, 춘분 1편), 여름 2편(단오 2편), 가을 1편(칠석 1편), 겨울 4편(대한 2편, 설달그믐 2편)에서 세시풍속 문화가 나타났다.

이상으로 보아 창작 동시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문화적 양상은 계절로는 봄의 세시풍속에 관한 창작 동시가 많으며, 다음으로는 가을과 겨울, 그리고 여름 순이었다. 명절로는 봄의 대보름과 설날에 관한 동시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봄의 삼짇날, 여름의 단오, 가을의 칠석, 겨울의 설달이 각 2편씩으로 나타났고 모두 공통적으로 풍습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설은 복식을, 대보름은 절식과 놀이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단오는 절식과 놀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한식과 추석에 관한 창작 동시는 각 1편씩 쓰였고, 세시기에 기록되어진 명절인 초파일, 유두, 백중, 중양, 납일에 관한 창작 동시는 아직까지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교유의 명절과 관련하여 풍습, 절식, 복식, 놀이 등 세시풍속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는 창작 동시 저작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절기 면에서는 봄의 절기 4개(입춘, 경칩, 춘분, 청명), 가을은 2개 절기(추분, 상강), 겨울은 3개 절기(입동, 동지, 대한)로 24절기 가운데 9개 절기에 관한 창작 동시가 있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절기를 소재로 한 창작 동시가 쓰여 세시문화와 연관된 절기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세시풍속 문화가 담긴 창작동시의 가치는 독자의 대상이 어린이를 넘어 어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함에 있다. 또한 세시풍속 창작 동시는 자연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선조들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세시풍속문화를 다양한 콘텐츠와 통합예술문화로 저변 확대함에 있어 특히 동시는 함축미와 음악성에서 매우 매력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를 전통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공익적, 교육적, 문화예술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1) 공익적 활용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의 공공 게시물 활용로 지하철 안전문·버스정류장·마을벽화·공공기관 등에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를 게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교육적 활용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과 박물관 체험 활동 등을 연계하고, 세시풍속에 나타난 속신 등을 스토리텔링 하는 방안 그리고 세시를 담은 노래 공모 및 발표회 방안을 제시하였다.

3) 문화예술적 활용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와 찻자리 예술 기획, 세시를 담은 창작 동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 세시풍속을 무대화하는 정기 연주회와 멋글씨(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통합 문화예술 콘텐츠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세시풍속 창작 동시에 담긴 문화적 양상과 전통문화콘텐츠로의 활용을 연구함으로써 세시풍속이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잇는 문화적 원동력이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사라져 가는 우리 세시풍속을 전통문화콘텐츠로 이끄는 매개체

로 창작동시의 역할이 매우 절실히 필요함을 주지시킨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시풍속 문화에 관한 창작 동시 35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창작 동시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전통문화콘텐츠로의 활용 토대를 구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공동체 의식 속에 자아 존중감, 정체성을 느끼게 해 줄,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세시풍속을 전승하는 다양한 콘텐츠로서 창작동시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고서>

- 『高麗史』
- 『舊唐書』
- 『北史』
- 『三國史記』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문집 편, 2005.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Ⅱ, 2005.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Ⅲ, 2007.
- 김명자, 한국세시풍속Ⅰ(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 민속원, 2005.
- 김명준 편저, 고려속요집성, 도서출판다운샘, 2002.
- 김선기, 고려가요의 해석과 이론, 역락, 2013.
- 김지용·김미란,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詩, 명문당, 2008.
- 박경용, 별 총총 초가집 총총, 서문당, 1980.
- 박경용, 셋강마을 숲동네, 가나출판사, 2011.
- 박성의 역,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한양가(漢陽歌), 민중서관, 1974.
- 안혜숙·주영애·김인옥,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신정, 2002.
- 유만공 저·임기중 역,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1993.
- 유종호, 말의 힘,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씀, 동국세시기 한권으로 집대성한 우리나라 세시
풍속, 풀빛, 2009.

<논문>

강향숙, 전통음악과 예절 중심의 유아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 검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김나경, 초등학생의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세시풍속 주제중심학습 프로그램
개발, 미술표현활동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김나리, '세시 풍속의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재의 개발, 경성대학교 대
학원 석사논문, 2011.

당홍, 4대 명절을 중심으로 연구한,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오연경, 고려속가 <동동>의 교육방법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왕락, 한·중 설날 세시풍속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이윤영, 초등 사회과에서 세시풍속 교육을 위한 교재 재구성 및 적용,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이은성,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대학교 대
학원 석사논문, 2010,

이진하, 세시풍속과 연계한 유아국악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원 석사논문, 2011.

임효정, 이색 한시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 장재천, 세시풍속의 사회교육적 의의, 한국 사상과 문화 47, 2009.
- 정구복·주영하, 고려시대 세시풍속연구,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 국립민속박물관, 2003.
- 정숙주, 세시풍속 교육에 관한 부모와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주영애·김선주, 우리나라 세시풍속과 관련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모형, 한국 전통생활문화학회지 6(1), 2003.
- 주영애, 세시풍속과 데이 시리즈 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32, 2015.
- 주일만, 한·중 세시풍속 관련 언어 표현 비교 연구-명절 관련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 최배영·김미식·김미희, 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세시풍속 교육 프로그램 연구, 여름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3), 2005.
- 최양환, 유만공 『세시풍요』의 민속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인터넷 누리집>

-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침표 마침표>: www.urimal365.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index.nfm/>
- 네이버 웹툰: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19877>
- 다음블로그: <http://m.blog.daum.net/innermountain2008/8301074>
- 대학저널: <http://blog.naver.com/asecomm/220483847514>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96979>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

벨뷰통합한국학교:

<https://www.facebook.com/United-Bellevue-KS-356616041212390/?fref=ts>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361>

조선일보: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41800109>

참좋은뉴스신문: <http://cafe.daum.net/truenewsjournal/>

케이스타일허브: <http://www.k-cel.kr/kstyle/intro.do>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sesi/Search.jsp/>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applications of creative children's poems based on our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Kang, Sun Ye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utilize traditional cultural content through mediums called "creative children's poems" so that the base of our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which have been passed down to our modern days can be further expanded.

In this study, the meanings and history of the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are sorted and reviewed especially in terms of the customs that change by each season and month based on "Joseon Daesesigi" and "Hankook Sesipoongsokjaryojipseong" published by the Korean National traditional Museum.

And further a total of 35 creative children's poems related with the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were analyzed and their cultural aspects of the poems were sorted out in terms of seasons, lunar calendar's marking of seasons and traditional holidays. After then, seasonal or festival foods and plays contained in the poems were further reviewed. Major findings

are shown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seasonal categorization, out of 35 pieces, 21 pieces were for spring, 2 for summer, 6 for fall and 6 for winter. In terms of the lunar calendar's marking of seasons and traditional holidays, among spring related poems, 5 pieces were for Seol(New Year), 8 for Daeboreum(the biggest moon day). 1 for Yipchoon(Start of Spring), 2 for Sahmjinnahl(the third day of the third lunar month), 2 for Choonboon(Vernal Equinox), 1 for Chongmyung(Pure Brightness) and 1 for Hahnsik(the 105th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

Among summer related poems, 2 pieces were for Dahno(the fifth day of the fifth month), among fall related ones, 2 for Chilsok(the sev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1 each for Choosok(Thanksgiving day) and Chooboon(Autumnal Equinox) and 2 for Sahnggahng(First Frost). Among winter related ones, 1 each for Yipdong(Start of Winter) and Dongji(Winter Solstice), and 2 each for Daehahn(Severe Cold) and Seotdahl Geumeum(New Year's Eve of the lunar year).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aditional culture shown in those poems 31 pieces were for customs, 7 for traditional seasonal foods, 3 for traditional seasonal cloths while 11 for traditional seasonal plays. Among these customs, 19 pieces were for spring, while 2 for summer, 6 for fall and 4 for winter respectively. Among traditional seasonal foods, 3 for spring, 1 for summer, 2 for fall and 1 for winter. Among traditional seasonal plays mostly derived from wishing for rich harvest, health or happiness, 7 for spring, 2 for summer, 1 for fall and 4 for winter.

Third, not only children but also adults as readers can sympathize and communicate with creative children's poems about our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And such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infused creative children's poems serve as a tool to learn the value of nature and family as well as wisdom of our ancestors. Further, in developing our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as various cultural content, children's poems are found to be very attractive mediums in terms of their beauty of implications and musicality. Hence, it was studied in a way how to utilize such creative

children's poems from a perspective of not only public and educational values but also cultural arts content.